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9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 : 금속가공기술자의 구술생애사

최혁규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
: 금속가공기술자의 구술생애사**



연구책임

최혁규 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2_연구내용 및 방법	7
3_연구참여자 소개	11
02 소공인은 누구인가?	20
1_기술인력 분류체계의 역사	20
2_‘도시형소공인’의 등장	23
3_숙련기술자 양성제도	27
03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구조	29
1_서울시 공업정책의 전개	29
2_서울시 도시제조업의 규모 변화	32
3_청계천·을지로 일대 제조업 현황	42
04 소공인의 구술생애사	45
1_금속가공기술자의 생애	45
2_호기심 많은 시골 소년의 서울 상경	46
3_더 나은 임금을 향한 이직과 기술 숙련	52
4_자영업 기술자로서의 삶	58
05 결론	63
1_기술인력으로서 소공인	63
2_서울시의 공업억제정책과 주요 공업지역의 지속	64

3_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생애 전략	65
--------------------	----

4_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	70
-----------------	----

06 정책 제언	72
-----------------	-----------

1_생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도시제조업 계획 수립	72
-----------------------------	----

2_부처 간 협동 정책 설계 및 시행	72
----------------------	----

3_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기록	73
---------------------------	----

4_도시제조업 혁신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73
-----------------------------	----

참고문헌	74
-------------	-----------

표 목차

[표 1-1] 소상공인정책의 발전단계	3
[표 1-2] 시보리의 기본 개념	12
[표 1-3] 구술자 인적 사항	14
[표 1-4] 구술 인터뷰 기본 정보	16
[표 2-1]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부의 기술 인력 분류	20
[표 2-2]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 인력 분류	21
[표 2-3] 과학기술인력 관련 여러 정의들	21
[표 2-4]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 비교	22
[표 2-5]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도시형소공인 업종 19개	25
[표 2-6]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분류내용	26
[표 3-1] 전국 소상공인 현황(1999~2017)	33
[표 3-2]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2007~2017)	35
[표 3-3]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현황(2007~2017)	37
[표 3-4]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현황(2017)	39
[표 3-5] 제조업 업종별 규모(2017)	41
[표 4-1] 구술자 생애 연표	4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10
[그림 1-2] 선반의 구조	12
[그림 1-3] 스피닝 가공	13
[그림 1-4] OO금속 외부 경관	14
[그림 1-5] OO금속 내부 경관	15
[그림 1-6] OO금속 공장 도면	16
[그림 1-7] OO금속의 소형 시보리 기계(스피닝 선반)	17
[그림 1-8] OO금속의 시보리 금형틀	17
[그림 1-9] OO금속의 원절기	18
[그림 1-10] OO금속의 원절기에 사용하는 나무판	18
[그림 1-11] 시보리에 사용하는 OO금속의 롤러(주걱봉)	19
[그림 2-1] 산업기술인력의 범위	23
[그림 2-2] 도시형소공인의 법률적 정의	24
[그림 3-1] 서울의 금속공업 분포(1966)	30
[그림 3-2]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변화(1999~2017)	34
[그림 3-3]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변화(1999~2017)	34
[그림 3-4]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변화(2007~2017)	36
[그림 3-5]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 변화(2007~2017)	36
[그림 3-6]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사업체 수 변화(2007~2017)	38
[그림 3-7]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종사자 수 변화(2007~2017)	38
[그림 3-8]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사업체 수(2017)	40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종사자 수(2017)	40
[그림 3-10]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비중(2017)	42
[그림 3-11] 을지로 일대 조각 산업(금형/주형) 업체 분포	44
[그림 5-1] 시보리 공정을 설명하는 소공인의 그림	66
[그림 5-2] 주문을 받고 재료의 크기와 제조 방식을 기록한 종이	68
[그림 5-3] 소공인이 시보리 공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69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1) 간과되어온 소규모 제조업과 도시형소공인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지면서 제조업 혁신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제출했다.¹⁾ 제조업 혁신은 기존의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결합하여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 기존의 대량생산 체제와 차별화되는 생산활동을 만들기 위해 신제조업 창출, 주력 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를 기본 전략으로 내세워, 기술개발과 기술혁신 그리고 인력 양성을 필수적인 과제로 제시했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11년에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중요한 제조기술들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여 제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2018).

앞서 2013년을 전후로 주요 국가들이 다시 제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저성장과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패권을 되찾기 위해 제조업을 다시 본국으로 불러들이려는 미국의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제조업 위상의 재조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산업고도화를 달성한 국가들이 오프쇼어링(offshoring)을 통해 생산기지를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로 이전했었는데, 개발도상국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러한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일어나면서 자국의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본국

1) 문재인 정부 2017년 8월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 해당하는 38번 과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 활력 회복(산업부)”이고, 세부 내용은 ‘제조업 부흥’이다(대한민국 정부, 2017). ‘제조업혁신 3.0’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정책브리핑’ 메뉴에 들어가면 자세히 볼 수 있고, 2019년 6월에 진행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비전 및 전략 내용도 볼 수 있다.

으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세계 제조업 간 연결되었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변동되고 재구축되고 있다(조성재 외 2016).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제조업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뤄진다는 사실이다. 국내에는 식민지 시기부터 작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소공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김근배, 2005), 지금도 10명 미만의 기술인력이 근무하는 작은 공장들이 도시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듯 약 100년 정도가 되는 소공업의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은 국가정책에서 주요 대상이 되지 못했다. 1997년 IMF 전후로 경제 전반이 위기에 처하면서 중소기업의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령이 2001년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었다. 2000년이 넘어서야 ‘소상공인’이 별도의 범주로 법적으로 정의되지만, 이 특별법의 주요 대상은 여전히 소기업이었다.

2010년 이후 유연한 생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도시 내에 입지한 작은 규모의 제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기존의 소규모 제조업만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기반한 소규모 디지털 제조업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3D프린터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의 디지털 기제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시작된 팹랩 운동(fablab movement)과 제작자 운동(maker movement)은 누구나 디지털 공작기계를 통해 자신의 책상 위에서 무언가 생산할 수 있는 탁상제조(desktop fabrication)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했다.²⁾ 이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장만이 아니라 작은 규모의 공장이나 심지어 책상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며 동시에,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시에 입지해 도시민들을 위한 재화를 생산하고 있던 소규모 제조 방식이 다시 이목을 끌고 있다(multiplicities, 2018).

국내에서는 2015년이 되어서야 뿌리산업의 동력으로서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별도의 관심이 본격화된다. 도시형소공인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타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 내 생산 하부구조의 역할과 동시에 지역산업 생태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도시 소공인을 숙련된 기술을 기반으로 전후방 사업과 연계할

2) 국내에 소개된 제작자 운동은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창업운동으로 소개되면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모든 제작자들이 시제품 개발과 창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팹랩 운동이나 제작자 운동은 무언가 만드는 행위 자체가 주는 즐거움을 강조하면서 기술 전문기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풀뿌리 기술문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최혁규, 2017, 2018). 창업은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한 이후의 일이다.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중소기업연구원, 2013). 그러면서 2015년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로 변경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전체 사업체와 종사자 규모에서 이들이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2020년에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본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 1-1] 소상공인정책의 발전단계

	1단계 1999~2001	2단계 2002~2007	3단계 2008~2011	4단계 2012~2014	5단계 2015~
경제·사회 환경	외환위기, 구조조정	위기 극복, 디지털 경제 확산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한·미 FTA 한·중 FTA	리쇼어링 전략과 제조업 부흥
소상공인 정책	도입	확대, 조정	관심 증가, 경영환경 개선	체계 정비, 질적 자원 확산	특별법 및 기본법 제정
지원사업	자금 지원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분화	성장단계 지원, 소공인 지원	지역산업 생태계 차원의 접근
중점	고용·사회안전망	중소기업, 사회안전망	중소기업, 사회안전망, 소비자, 지역경제	중소기업, 소비자, 지역경제	기술혁신과 경영안정

자료: 홍석일 외(2016, 55쪽)를 기반으로 5단계 보완

2)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의 한계

2015년 <소공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도시 내 소규모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소공인 집적지’를 지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그 지역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도시제조업 업체들에 대한 금융 및 기술 지원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도 기존 제조업 지역을 도시경제의 중요한 자원으로 삼아 도시계획과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는 도심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비전2030>을 통해 서울의 특화산업 집적지를 활성화하겠다고 선언했다(서울특별시, 2014a; 2014b). 2015년에는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제정책과에

도시제조업팀을 신설했고 이 팀을 중심으로 ‘도심제조 스마트앵커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5개년 계획〉 중 첫 번째 계획으로 도심제조업 지원을 선언하면서, 이 사업이 서울시 산업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자체적으로 도시제조업 지원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소공인 집적지 지정과 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하면서 도시제조업진흥재단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건국대학교·유스하이텍·섬유판선정책연구원, 2018;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8).

또한,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의 차원에서 오래된 공업지역의 낙후된 물리적·산업적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상공인 공동체와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기계금속·전자전기·인쇄 산업 지역인 청계천-을지로-세운상가 일대, 봉제 산업 지역인 창신동과 송인동, 수제화 산업 지역인 성수동 등에서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구(舊) 공업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유형의 차이로 인해 방향과 규모 등이 다르지만, 기존의 지역주민이나 지역상인 공동체를 만들어 이들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도시형소공인들이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직접적으로는 산업정책의 차원에서 소공인 집적지 지정과 도시 제조 거점시설 구축, 금융 지원, 혁신 기술 보급 등과 같은 소공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서울특별시, 2017a).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형 소공업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들을 설계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제공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경영환경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하지만 국내의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불공정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서울시는 약 반세기 동안 서울의 인구 밀도를 억제하기 위해 소공업을 여러 방면으로 규제하려 했다. 이렇게 소공인에게 불리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구조화되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인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불리한 제도적·산업적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소공인들의 생존 전략과 구체적인 생산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며,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계적인 지원정책만 실행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령 산업생태계를 재생하겠다는 세운상가군 도시재생의 경우,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바람에 소상공인들이 강제로 퇴거되거나 이주하면서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일부 깨져버렸다(cf. 서울연구원, 2019: 141~142). 특정한 지역에서 밀집해 있는 게 중요한 도시제조업의 경우, 재개발이 진행되어 상공업 밀집 지역이 사라지고 상공인 공동체가 깨지게 되면 지원사업도 필요 없게 된다. 대부분의 소공인 집적지가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 지역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3) 도시형소공인의 구체성 파악 필요

서울의 제조업에 대한 전체적인 양적 현황과 구성은 파악되어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조사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도시제조업과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책 도출을 위한 양적인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중소기업연구원, 2013; 2015; 서울연구원, 2012; 2014; 2015; 2016). 도시형소공인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공학적인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인들의 노동과 생존 전략 그리고 일상적 삶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공인들의 영세성을 설명하려 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쉽게 추측 가능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소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공인들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 영세성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공인들이 자신의 영세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나아가 기술은 어떻게 습득하고 숙련했는지, 작업장의 입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품 생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도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 심지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가 어떻게 존속되고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간적 조건에 대한 방안도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았다. 즉, 소규모 제조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 담론들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 산업의 특성과 공장들이 입지한 지역, 그리고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주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이나 학술적인 차원에서 다뤄진 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 여러 소공인의 삶을 다룬 전순옥·권은정(2015)의 「소공인」은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순옥 의원이 만난 소공인들의 삶을 미디어 기사 형식으로 다룬 대증서이다. 봉제, 구

두, 가방, 귀금속 등 분야의 소공인들의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심화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³⁾ 오히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식민지 해방 전후부터 영등포 공장지대에서 일했던 공장노동자들의 삶과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동대문 일대에서 일했던 미싱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구술 인터뷰 자료집(서울역사편찬원, 2013; 2016)과 세운상가 일대와 인현동 일대의 기술자들의 생애사를 기록한 생활문화 조사자료집(서울역사박물관, 2010a; 2010b; 2015)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구 북성로 일대의 기술장인들의 생애를 기록한 자료집(시간과공간연구소, 2016), 세운상가 일대 기술자들의 인터뷰가 수록된 자료집(공공네트워크, 2017), 청계천과 을지로 도시제조업 지역에 해당하는 산림동과 입정동의 기계금속가공업 소공인을 인터뷰한 자료집(내용연구소, 2018; 저스트프로젝트, 2018;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20)과 문래동 일대의 소공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가 있다(강수경, 2020).

또한, 소공인보다는 장인 혹은 명장의 기술 숙련이나 장인의식을 교육훈련의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조성재 외, 2013; 이재실 2011; 박경용, 2014; 권오현·김민형, 2015; 장원섭 2015; 권미애·손민호, 2018). 장인과 명장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주로 이들의 기술 숙련 과정과 노하우를 밝혀 내면서 장인성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생애 경험을 다루기는 하지만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소공인의 생애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기존의 소공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책 수립을 위한 현황조사와 실태조사가 많고, 질적조사의 경우에는 역사적 기록이나 구술 증언 형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 창업이나 메이커 운동 등과 더불어 소규모 제조업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소공업의 역사와 현재를 분석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따라서 도시제조업의 맥락 속에서 소공인의 일과 삶을 살펴볼 수 있는 구술생애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도시제조업 소공인들의 일과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소공인이

3) 전순옥·권은정(2015)이 “우리 시대의 장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소공인들 외에도,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이라고 부르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인터뷰집도 출간된 바 있다(윤재석, 2014). 한국엔지니어클럽에서 출간한 이 책은 엔지니어 중에서도 기술관료나 경영자의 위치에 오른 최형섭, 박태준, 이병철, 장주영 등의 인물들에 대한 인터뷰집이다. 소공인들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이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대규모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험한 생애사만이 아니라, 그 경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공인의 정의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서울 도시제조업의 역사적 맥락과 현황, 그리고 해당 소공인의 작업장이 위치한 지역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공인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축하고 있는지 생애 경험을 추적하고 생애 전략을 규명한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의 제공은 소공인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소공인의 일과 삶을 이해하는 것은 서울 도시제조업의 단면을 보는 것이기도 하다. 즉, 도시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들과 소공인의 생애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면서 도시제조업의 역동적인 현장을 보여주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들을 설명하고 생애 과정을 분석하여 소공인의 구체적인 일과 삶의 모습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탐색적이고 해석적인 연구이다. 소공인과 소공업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상에 대한 조사·연구는 차후 진행될 연구를 위해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심화 가능한 주제들을 수색해보는 작업이다. 따라서 소공인에 대한 일반적 조건들을 해명하면서, 동시에 특정 소공인 개인을 표집하여 그의 구술생애사를 추적하여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을 밝혀낸다.

먼저 ‘소공인’이라는 범주가 어떤 이들을 지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지칭하는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검토한다. 두 번째로 서울 내 소공업의 형성과 현황을 다루면서 소공업을 구조화하고 있는 제도적·산업적·지역적 조건을 밝혀낸다. 여기서는 소공인이 어떠한 제도적 조건과 사회적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공인이 자신의 생애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일과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소공인이 이러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애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면서 자신의 일과 삶을 지속시켜왔는지를 볼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질문1] 소공인은 누구인가? 소공인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소공인이 되는가?
- [질문2] 소공인은 어디에 있는가? 소공인은 어떤 산업구조 내에 있는가? 소공인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가?
- [질문3] 소공인은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소공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어떠한 경험을 했고, 이러한 경험들은 어떠한 삶의 전략과 태도를 통해 지탱되었는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주로 소공인의 현재적 정의를 다루면서, 숙련기술자이자 자영업자로서 소공인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해왔는지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소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두 번째는 소공인이 위치한 산업적·지리적 공간을 탐색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산업구조 내에서 소공업의 비중과 종사자의 비중과 함께 그 변화 추이를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서울시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묘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다루고자 하는 소공인이 위치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도시제조업 공간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세 번째는 금속가공업 기술자의 구체적인 삶을 다룬다. 숙련된 기술자로서 소공인의 일에 대한 분석은 주로 기술 습득과 숙련 그리고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지, 어떻게 기술을 체화하면서 암묵지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기술력을 노동시장에 팔면서 삶을 유지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주로 기술 습득과 경제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소공인의 경제활동의 동기와 이를 통해 영위하고자 했던 일상적인 삶의 내용과 그 의미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소공인을 둘러싼 다른 사회적 관계들을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소공인의 일과 삶이 뒤엉키고 있는 모습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구술생애사와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소공업과 소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공업 현장에 대한 민족지 연구(Ethnographic Research)를 우선적으로 수행했다. 민족지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일상

생활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참여관찰은 현재의 관점에서 소공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소공인의 일과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관찰이 필수적이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자들의 삶의 현장에 참여하여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어 가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용숙 외, 2013: 102)으로, 현장에서의 행위의 심층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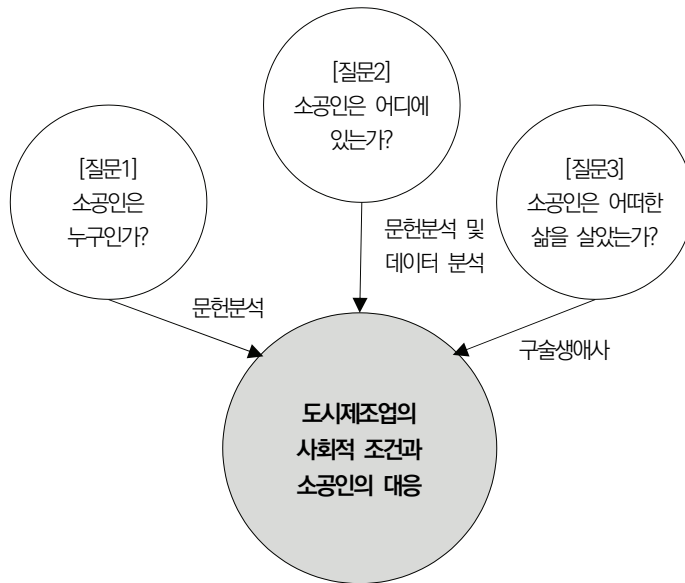
이러한 선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제조업 소공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 구술생애사를 진행했다. 소규모 도시제조업 종사자들의 삶은 자세하게 다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술 인터뷰를 통해 생애사를 기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애사(life history)는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소공인들의 경험과 삶의 여러 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적인 연구방법이다(윤택림, 2013: 165). 따라서 구술생애사는 방법론적으로 한 인물의 삶의 궤적에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구한다(이희영, 2005). 구술생애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개인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개인의 행위와 사회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한 구체적 일반성을 밝혀낸다. 즉, 사회적 조건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영위하는 개인 행위자를 사회적 존재로 위치시켜주는 고유한 결합양식을 규명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술자는 현재를 기점으로 생애를 서술하면서 자신의 삶을 시간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이를 통해 이들의 생애사적 전략과 행위 지향 그리고 의미 부여의 틀을 추론해낼 수 있다. 따라서 정치·경제적 사건이 발생하거나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라 사회적 요구가 부여되는 구조적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는지를 분석적으로 살펴본다.

구술생애사 연구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구술 자료는 객관적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지만, 이 증언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기억을 서사적으로 구성하여 발화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즉, 구술생애사는 구술자의 기억에 기반한 구술 증언에 토대를 둔 연구라는 점이다. 따라서 구술생애사는 구술 증언 그 자체를 진실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보다는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생애사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역사연구나 사회과학에서 할 수

없는 서사적 진실을 해명하는 역할을 한다.

서사적 진실이라는 구술생애사의 특성을 감안하자면, 구술생애사 연구는 단일하고 절대적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자들의 과거를 재현하고 그의 삶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면서 생애 전략과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다. 따라서 실제 구술자가 체험한 삶의 이야기를 ‘체험된 생애사(life history as lived)’로, 이 체험된 생애사를 바탕으로 구술한 생애사를 ‘이야기된 생애사(life history as told)’라고 분석적으로 구분한다(이희영, 2005).⁴⁾

따라서 이 연구는 소공인의 구술된 ‘이야기된 생애사’를 분석하고, 이를 역사적 검증을 통해 ‘체험된 생애사’로 재구성하여,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반적인 조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술자의 서사 전략을 파악하고 생애 전략을 규명할 것이다.



[그림 1-1] 연구질문과 연구방법

4)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정도의 방법론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적으로 개방된 인터뷰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서사화하여 서술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언어화된 생애사 텍스트를 합리적으로 질서화된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비언어적 표현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역행추론을 통해 이야기된 생애사에 대해 재구성한다. 구술자가 이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를 파악하면서 행위지향과 의미부여의 틀을 밝혀낸다. 넷째, 체험된 생애사에 대한 재구성은 구술자의 해석의 관점, 즉 생애사적 전략을 이해하고 이것과 구분되는 객관적인 생애 사건을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다섯째, 유사 사례에 대한 비교이다(이희영, 2005). 이 연구도 이러한 원칙들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3_연구참여자 소개

1) 전략적 표집

이 연구는 금속가공기술자 한 명의 구술생애사를 추적한다. 이 연구는 전략적 표집(sampling strategically) 방법을 택하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제조업 지역과, 연구자의 연구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해 심층적이고 풍부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소공인을 선정했다. 전략적 표집 방법은 양적 연구에서의 통계적 확률 표집과는 대비되는 표집 전략으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집단의 대표성을 가진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 목적에 관련되는 여러 사회적 맥락과 현상을 포괄하여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Mason, 199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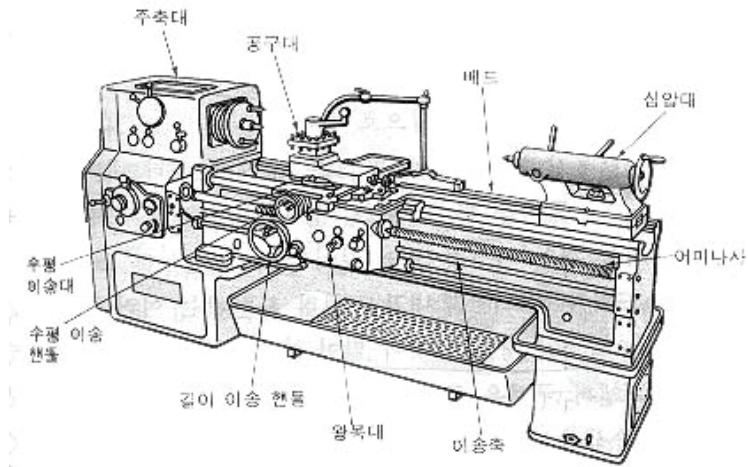
이 표집 전략에 따라 이 연구는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도시제조업 지역에 있는 금속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소공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참여를 요청했다.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소공업 지역은 해방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해왔고,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술과 함께 기술자들을 배출한 곳이다. 나아가 “청계천에 오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한국 제조업의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 80년대 이후 낙후된 시설 때문에 재개발 논란에 많이 시달려왔지만, 2016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로 세운상가군 일대가 선정되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됨과 동시에 재개발에 시달리고 있다.

이전의 역사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세운상가의 전자제품의 수리와 제조 그리고 판매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1967년 세운상가군이 지어지기 전후로 이 지역에는 기계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소규모 공장들은 서로 협력하면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산업기술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빠르고 정밀하게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바탕으로 기계금속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공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그 소공인의 생애를 통해 도시제조업의 역사와 현재를 기록하고 재구성했다.

2) 금속가공기술자

연구참여자인 금속가공기술자는 스피닝 선반이라는 기계를 사용하여 금속 제품의 형태

를 만드는 ‘시보리’라는 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속 가공기술은 주로 금속 공작기계(metal cutting machine tools)와 금속 가공기계 (metal forming machine tools) 중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고 있던 기계는 금속 가공기에 속하는 ‘선반(lathe)’이다. 그중에서도 시보리 기술자가 사용하는 스피닝 선반(spinning lathe)은 가공할 금속판을 회전시키면서 원통 형태의 스피닝 형틀에 맞춰 주걱봉으로 소재를 눌러 형틀에 맞게 금속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이다(기계공학용어사전 홈페이지).



출처: 사이버기술교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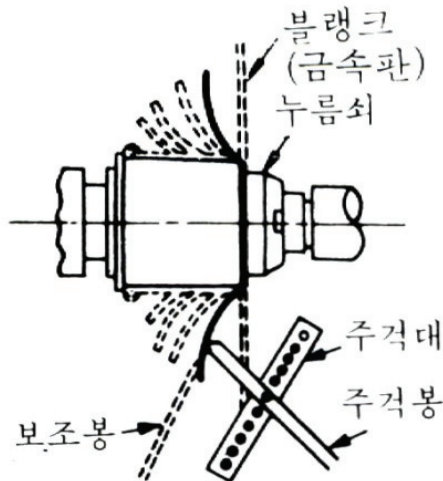
[그림 1-2] 선반의 구조

[표 1-2] 시보리의 기본 개념

분류	내용
정의	헤라 시보리는 일본어로 헤라(=구둣주걱), 시보리(명새놀러서 짬)이며, 어원을 조합해보면, 구둣주걱으로 힘을 가하더라는 의미로 정밀 프레스금형으로 인해 생산업체들은 줄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시제품 제작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다. '시보리'란 얻고자 하는 금형에 회전을 주어 그에 맞는 원판을 준비하고, 원심력과 도구를 이용하여 밀착시켜 금형과 같은 모형을 얻어내는 기술이며, 프레스가공과 달리 이때 전문가의 정확한 힘 조절과 재료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두께의 제품이 나올 수 없다.

분류	내용
작업 공정	1단계: 금속판을 원형으로 자른다. 2단계: 금속판을 선반 틀에 고정시킨 후 고속으로 회전을 걸어준다. 3단계: 금속 재질과 두께의 차이마다 다른 길이의 금속 봉(헤라 및 금속판의 재질에 따라 롤러를 사용함)헤라를 겨드랑이에 끼우고 헤라의 끝부분으로 세게 밀어 제품의 형상을 만들어 준다.
사용 용도	일반적으로 시보리로 작업할 수 있는 제품은 원공, 반공, 트로피, 종, 밥술, 밥공기, 화분 등이며 100%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물 모양도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섬세한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헤라 시보리는 금속 봉으로 금속판을 가공하는 기술로 사출 또는 프레스금형이 힘든 다품종 소량 생산에 많이 사용한다. 큰 식당 등에 필요한 대형 술 또는 사출성형기의 핵심 부품인 사이클론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속을 둥글게 가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판을 원형으로 자르고 선반 틀에 고정한 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금속 봉으로 둥근 모양을 만드는 헤라 시보리 작업을 한다.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출처: 4차 산업혁명 지식서비스 홈페이지



출처: 도해 기계용어사전

[그림 1-3] 스파닝 가공

연구참여자인 소공인 전OO은 1952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당시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서 광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 6남매 중 둘째로 자랐다. 그는 현재 68세이고, 1968년에 서울에 상경한 뒤 후암동 남선스텐 공장에서 시보리 기술을 시작해 52년째 기술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86년에 을지로 일대에

서 공장을 개업해 약 8평 정도의 공장을 34년째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시보리 기술자들이 비해 큰 규격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특기이기 때문에, 특수 조명 것과 대형 세탁기 통 등을 주로 만들었다.

[표 1-3] 구술자 인적 사항

분류	내용
이름	전OO
생년	1952년
출생지	충북 보은군 마로면
가족 관계	6남매 중 둘째, 자녀 둘(아들 사망)
보유 기술	시보리 (금속 가공 기술)
일 시작	1968년 서울 상경
기술 습득	1968년 남선스텐 공장에서 시보리 일 시작
창업	1986년 서울 을지로에 XX공장 창업
특기	대형 시보리, 공간 시보리 등
주요 제작물	특수 조명, 대형 세탁기 등



[그림 1-4] OO금속 외부 경관



[그림 1-5] OO금속 내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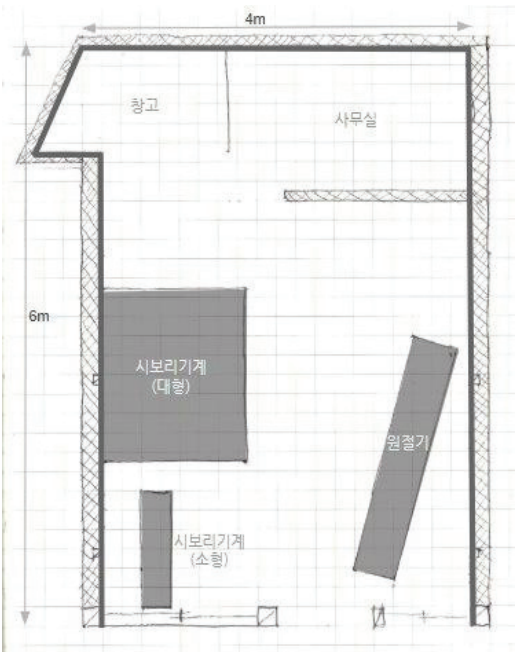
연구자는 민족지 연구를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OO금속 공장에서 1주에 2, 3회씩 참여 관찰을 시작했고, 8월부터 시범 인터뷰, 본 인터뷰 그리고 추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총 9차례 22시간 10분 동안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참여관찰은 직접 소공인 공장에 방문해 연구 의도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뒤에 시작했다. 주로 공장에 방문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시보리 기술을 포함해 금속 가공 제조와 청계천·을지로 일대의 도시제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1평 남짓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연구에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자주 나눴다. 그리고 연구자가 어느 정도 기술 용어와 제조 과정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본격적인 구술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8월 초에 시범 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생애를 들은 뒤, 생애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눠 시기별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구술자의 기억 회상을 보조하기 위해 연구자가 구술자가 일하던 지역의 사진과 지도를 미리 준비해 보여주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연구자가 옛날 신문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생애사를 분석하면서 다섯 차례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는 소공인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OO 금속 내 사무실에서 진행했고, 때로는 점심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인터뷰를 지속했다.

특히 추가 인터뷰는 조금 더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연구와 관련 없는 사람을 나누기도 했다. 모든 구술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했고, 녹취록을 만들어 생애사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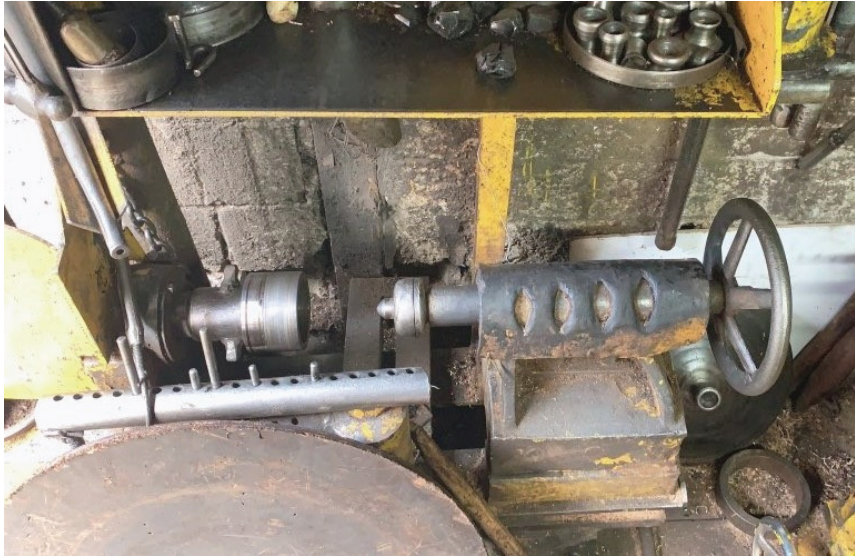
[표 1-4] 구술 인터뷰 기본 정보

분류	날짜	장소	시간	비고
시범	2019.08.05.(화)	OO금속 공장	1시간	
1차	2019.08.06.(수)	OO금속 공장	4시간	
2차	2019.08.07.(목)	OO금속 공장	5시간	
3차	2019.08.08.(금)	OO금속 공장	4시간	
추가 1차	2019.08.13.(화)	OO금속 공장	2시간	
추가 2차	2019.08.26.(월)	OO금속 공장	1시간	
추가 3차	2019.09.02.(월)	OO금속 공장	30분	
추가 4차	2019.10.16.(수)	OO금속 공장	1시간 20분	
추가 5차	2019.12.17.(목)	OO금속 공장	3시간 20분	



출처: 안근철(2019, 미발표 자료)

[그림 1-6] OO금속 공장 도면



[그림 1-7] 00금속의 소형 시보리 기계(스파닝 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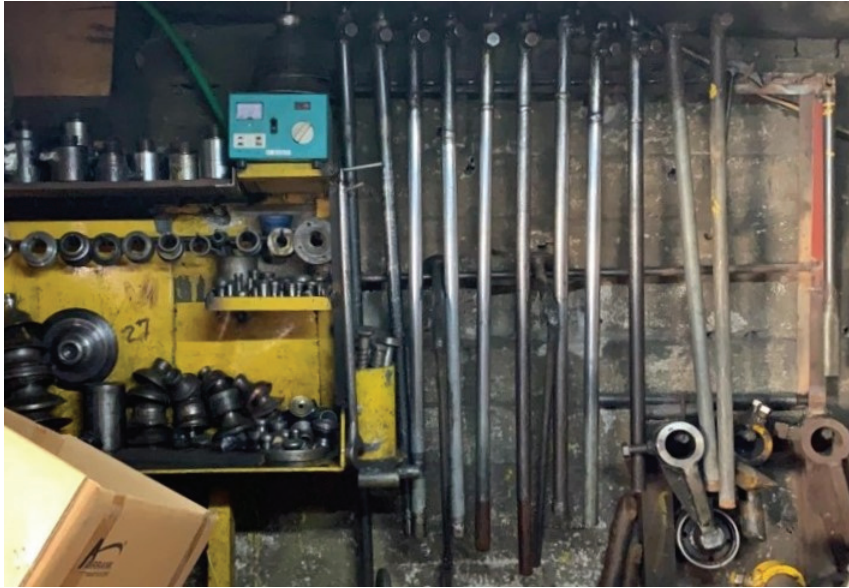
[그림 1-8] 00금속의 시보리 금형들



[그림 1-9] OO금속의 원절기



[그림 1-10] OO금속의 원절기에 사용하는 나무판



[그림 1-11] 시보리에 사용하는 00금속의 롤러(주걱봉)

02. 소공인은 누구인가?

1_기술인력 분류체계의 역사

소공인은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자나 기능공의 정의 그리고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의 범주에는 소공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에는 기술인력을 기술자와 숙련공으로 나눠서 정의했다(장미현, 2016). 하지만 점차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공업화를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고자 했고, 이를 위해 화학공학과 출신인 오원철과 군인 출신의 김정렴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다.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부에서 각기 다르게 기술인력을 분류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술자 분류 또한 이와 다르게 정의되면서 용어들이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된다. 게다가 전자산업이 성장하면서 공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술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제도적인 용법과 일상적인 용법 사이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게 된다.

[표 2-1] 경제기획원과 과학기술부의 기술인력 분류

수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부	
	1962년	1963년	1980년	1982년
수준1	기술자	기술자	과학자, 기술자	과학자, 기술자
수준2	기술공	기술공	기술공	기능자
수준3	기능공	숙련공, 반숙련공, 견습공	기능공	기능자

출처: Han and Downey(2014/2016: 34, 39쪽)

[표 2-2]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기술인력 분류

수준	연도			
	1967년	1969년	1973년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수준1	기술자	과학기술자	과학기술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수준2	기술공과 연구조수	기술공	현장기술자	산업 기사
수준3	기능공	기능공	기능자	기능사

출처: Han and Downey(2014/2016: 43쪽)

국제사회는 기술인력을 ‘과학기술인적자원’ 또는 ‘과학기술인력’이라고 부른다(조항희 외, 2002). OECD는 1995년에 발행한 「캔버라 매뉴얼(Canberra Manual)」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와 이들이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을 ‘과학기술인적자원(Human Resources in Science and Technology)’이라고 정의하고,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대학 수준의 과학기술인적자원과 기술자 수준의 과학기술인적자원으로 구분한다. UNESCO는 1984년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는 자들을 ‘과학기술인력(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들을 직종을 기준으로 하여 과학자 및 공학자, 기술자, 보조인력으로 분류한다.

[표 2-3] 과학기술인력 관련 여러 정의들

- 과학기술인적자원(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과학기술 분야의 고등교육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취업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OECD(1995), Canberra Manual)
- 연구개발인력(R&D Personnel):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관련되어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개발관리자, 행정직 사무원까지 포함(OECD(2002), Frascati Manual)
- 과학기술인력(Scientific and Technical Personnel): 특정 기관 및 부문에서 직접적으로 S&T 활동에 참여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용역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인력(UNESCO(1984))
- 고급인력(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이공학 전공자이거나 과학자나 엔지니어로 활동하는 인력(NSF, <http://nst.gov>)

출처: 조항희 외(2002: 11쪽)

2000년대 이후 한국 정부도 OECD와 UNESCO의 정의를 참고해 ‘직종’과 ‘자격’이라는 두 측면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들을 ‘과학기술인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전문대학 이상의 과학기술 교육을 받은 자와 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킨다. 하지

만 1980년대 이전에 중화학 공업과 제조업에 종사했던 기능인력들은 이러한 정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 특성들을 고려해 이러한 기능인력들은 과학기술인력에 포함되고는 했다(조황희 외, 2002). 하지만 이러한 예외 범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기술인력’이라는 별도의 정의를 내린다(HRST 공동연구센터,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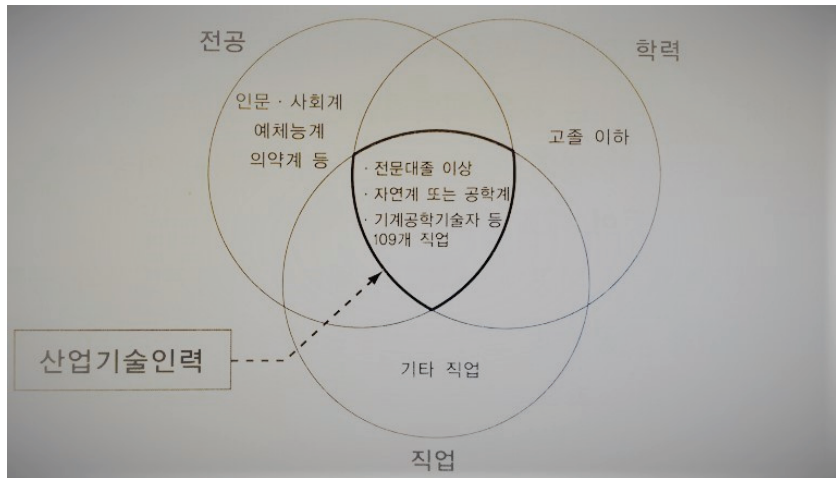
하지만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주 내에 소공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산업기술인력이라는 정의가 중화학 공업화 당시의 기능공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교육 수준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60~70년대에 보통교육을 받지 않고 서울로 상경해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운 소공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소공인은 고숙련의 기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인력에도, 산업기술인력에도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소공인이라는 범주를 통해서만 정의가 된다.⁵⁾

[표 2-4]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 비교

구분	과학기술인력	산업기술인력(실태조사 기준)
교육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공분야	자연계, 공학계, 의학학계, 농림수산학계	자연계, 공학계
직업분류	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활동범위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소, 기타 교육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업
산업범위	전 산업	제조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출처: 한국산업기술재단(2005; HRST 공동연구센터, 2007; 17쪽에서 재인용)

5) 소공인들이 고숙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 수준이라는 학력 차이 때문에 ‘기술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소공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제조업의 하부구조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가시되어졌던 역사와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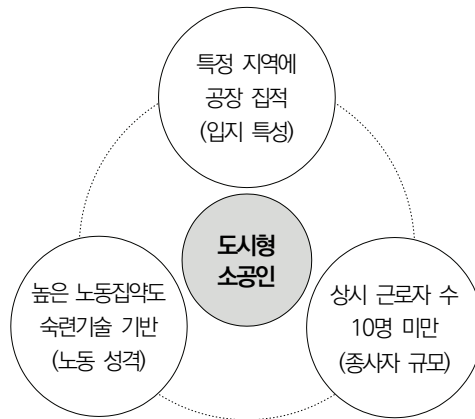


출처: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2006; HRST 공동연구센터, 2007; 16쪽에서 재인용)

[그림 2-1] 산업기술인력의 범위

2_ ‘도시형소공인’의 등장

이와 달리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인력이나 산업기술인력에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교육 수준이라는 기준이 없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이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정의로, 국가적 차원에서 소규모 제조업에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정의한 내용이다. ‘도시형’이라는 말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7대 도시 및 수도권(경기도)라는 구체적인 지역을 의미한다(중소기업연구원, 2013), 이 정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동집약도가 높은 숙련기술 기반의 노동이라는 점,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점이다. 이는 각각 도시형 소공인이 가진 노동의 성격, 공장 입지의 특성, 종사자 규모를 가리키고 있다.



[그림 2-2] 도시형소공인의 법률적 정의

도시형소공인이 속하는 범주는 생활밀착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뿌리산업을 기초로 하는 제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생활밀착형 제품은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가구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이 해당되고, 뿌리산업을 기초로 하는 제조업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등 전자·기계류 등이 포함된다(중소기업연구원, 2013).

이러한 정의는 정책의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종 분류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형 소공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제조업(대분류) 중 5개 업종을 제외한 19개 업종이다. 이 업종들은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가구, 기타 제품 등의 제조업이다. 제외된 5개는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도시에서 생산이 어려운 업종들이다.

[표 2-5] 표준산업분류 제조업 중 도시형소공인 업종 19개

대분류	KSIC	분류명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이 업종 중에서 연구참여자인 금속가공기술자는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속한다. 그리고 시보리 기술은 금속판을 스피닝 선반에 걸어 회전시키면서 금형 틀에 맞게 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259) >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2591)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25914)에 해당한다.

[표 2-6]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25914
분류명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설명	금속 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기계장비 부분품, 의료용품, 장식용품, 가구 부속품, 가정용품, 모형 등의 특정 제품 및 조립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25913)		
색인어	가구부품 압형제품 제조(금속제), 가스레인지 상판 압형제품 제조(금속제), 가정용 및 가구류 판금 성형제품 제조(용접, 조립 등 후속 가공품 제외), 가정용 압형제품 제조, 가정용 철물프레스 가공, 구조물용 판금제품 제조(용접, 조립 등 후속 가공품 제외), 금속 압형가공 부분품(자동차용 제외) 제조, 금속 압형제품 제조, 금속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판금 이후 후속 가공품 제외, 임가공품 제외), 금속 전단(shering) 타발(blanking) 가공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임가공 제외), 금속 프레스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금속제 판금 성형가공품 제조(임가공 제외, 판금 이후 후속 가공품 제외), 기계부품 압형제품 제조(금속제), 기계부품 프레스가공품 제조(금속제), 기계장비 부분품 제조(압형제품), 기타 금속제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넘버플레이트(number plate, 번호판) 제조(금속제; 압형제품), 동 프레스 가공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롤성형제품(roll forming) 제조(자동차용 제외), 바인더(binder) 프레스 가공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변속기 커버 제조(압형제품, 자동차용 제외), 비철금속제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스탬핑(판금 요철가공) 가공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스테인레스제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알루미늄제 가정용 제품 제조(프레스 가공), 알루미늄제 압형제품 제조(자동차용 제외), 압인(코이닝, coining) 가공품 제조, 완구용 프레스 가공품 제조(금속제), 재떨이 제조(금속압형제품), 전기기기용 부분품 제조(금속 압형가공), 철강판 절곡 가공품 제조(임가공 제외), 컴퓨터 부품 압형 제조(금속제), 컴퓨터용 판금 부분품 제조, 통신부품 압형가공 제조(금속제), 트랜스(변압기) 케이스 판금가공품 제조(압형제품), 판금제 식품케이스 부분품 제조, 프레스 가공품 제조(금속제, 자동차용 제외)		

출처: 통계분류포털 홈페이지

결론적으로 기술인력을 지칭하기 위한 제도적 규정은 시기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지만, 이러한 정의들 중 현재 우리가 ‘도시형소공인’이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야 소규모 공장이 집적된 특정 도시 지역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고숙련 노동자로 이들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3_숙련기술자 양성제도

산업 현장에 필수적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직업교육은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제도 내에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직업훈련은 노동부에서 산업 현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술인력의 정의에 소공인이 포함되지 않았듯, 이러한 직업교육훈련에 대부분의 소공인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인력 양성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세기 초입에 들어설 때부터 자생적으로 기술자들을 양성하고자 하고자 했지만, 일제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부분적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대공장에 채용될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교육하는 곳은 일본 본토에서 이뤄졌고 실제 현장 투입도 그들 위주로 이뤄졌다(김근배, 2005).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인력 양성교육이 본격화된 시기는 경제개발을 위해 중화학공업 육성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가 ‘공업 입국’으로 들어서기 위해 과학자, 엔지니어, 기능공 등의 인력을 양성하는 공업교육을 대대적으로 펼쳤던 1973년부터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숙련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교육훈련 제도들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되었다.

물론 1960년대부터 공업중학교와 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면서 공업교육이 진행되었고, 1967년에는 직업훈련이 법으로 제정되어 공공 직업훈련과 민간 직업훈련 모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기업 내 직업훈련이나 기술계 사설학원들이 생기기도 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기계공고, 시범공고, 특성화 공고 등 공고 특성화 정책이 시행되었고, 1977년에는 기능대학법이 제정되면서 기능대학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특성화 정책이 폐지되고 공업교육이 축소되었다. 이후로 공업교육은 1990년대까지 주로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 등의 부처가 정책을 주도해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화학 공업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방식으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운영했지만, 소공인들은 이러한 직업훈련교육을 거치지 않았고 대부분 공장에서 도제식으로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기술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cf. 최혁규,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소공인의 숙련기술들은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사전 훈련 없이 생산활동 현장에 투입되면서 생존을 위해 ‘어깨 너머’로 익힌 기술이다. 그래서 소공인들은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직하면서 경험을 더 쌓거나, 새로운 제품들을 만드는 걸 새롭게 시도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해간다(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20).

03. 서울시 도시제조업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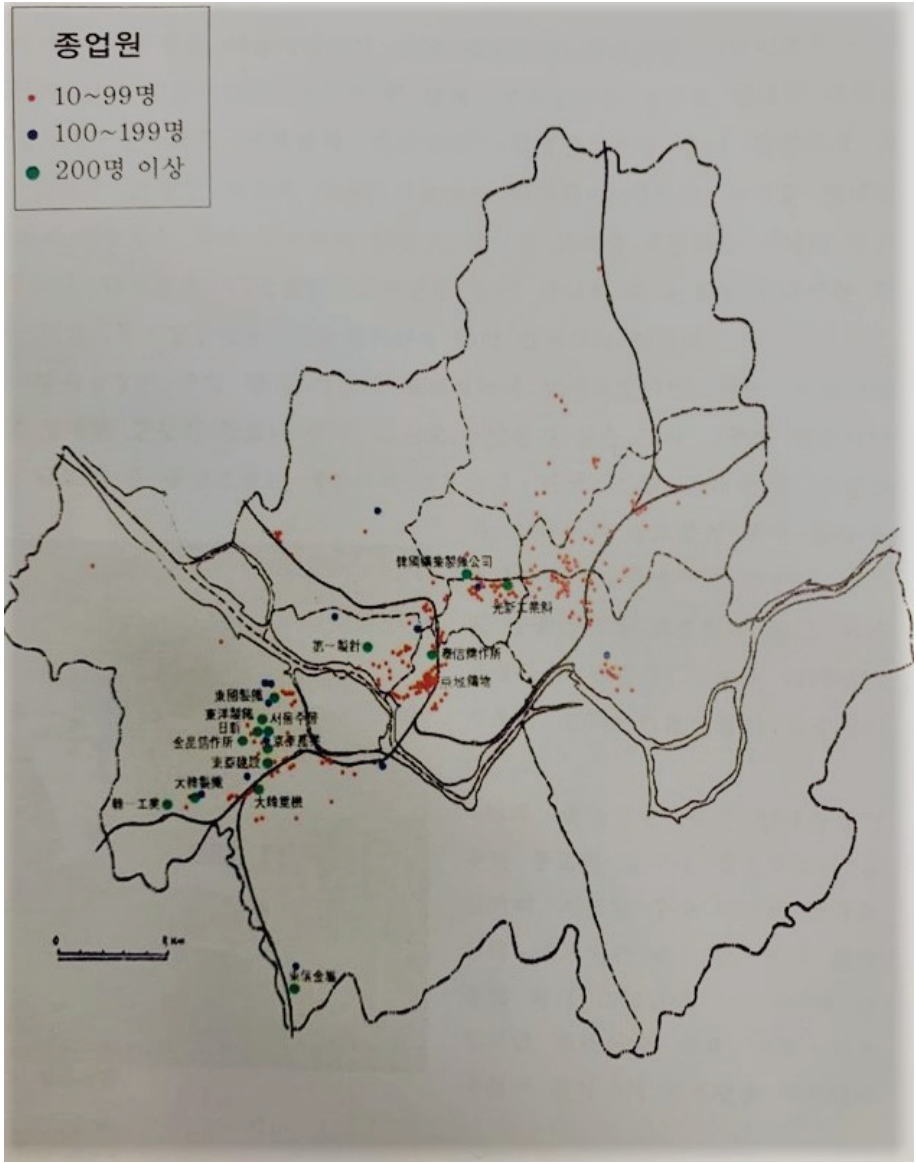
1_서울시 공업정책의 전개

서울의 공업정책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된다(형기주, 2003).⁶⁾ 전재복구기(전후 1950년대), 경제계획 초기(1960년대), 중화학공업 추진기(1970년대), 구조정기(1980년대), 지식산업추진기(1990년대)가 그것이다. 유념할 점은 서울시 자체로 공업정책이라 할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김묵한, 2018). 여기서 다루는 서울시 공업정책은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첫째 시기는 1955년 한국전쟁 이후 전재복구기이다. 이때는 미국의 자금 원조와 불하된 일제 공장을 통해 공업을 발전시키려 했으며, 재건에 필요한 물자와 생필품이 급선무였다. 초반에는 소비재가 생산재의 3배가 될 정도의 비율로 제조되었으나, 복구를 위한 시설재 생산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재 부분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서울은 인쇄·출판업, 의류, 화학, 금속가공, 기계 등 대도시 지향성 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1960년 이후 경제계획 초기 단계의 시기이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세우고 수출증대를 위한 노동집약적 경공업의 건설하면서 대규모 중공업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했고, 외국 투자도 유치했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서울에 공장 등록이 증가했고,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섬유와 식품 부분 제조공업 증가했다. 인쇄/출판, 의류, 금속가공, 기계 부분 비중이 높지만, 점차 큰 규모의 용지가 필요하거나 공해가 발생하는 공업은 서울 외곽에 위치했다. 당시의 공업 입지는 용산·원효로 지역, 영등포 지역, 청계천 지역 등으로 식민지 시기의 공업과 연속성을 갖는 곳이다. 이 당시에 금속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분포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⁶⁾ 이 절은 형기주(2003)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출처: 형기주(2003)

[그림 3-1] 서울의 금속공업 분포(1966)

세 번째 시기는 중화학공업 추진시기로, 대내외적으로 여러 사건들이 있던 시기이다. 유신 선포, 월남전, 오일쇼크 등 국내외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3, 4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수출증대 가속화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민간을 통제했다. 기술 및 노동집약적 중공업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제철공장, 중기계공장, 조선공장, 화학

공장 등이 건설되었으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유입지 형태로 생겨난 서울의 공업지역과 과밀 인구를 막기 위한 억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 공장의 지방 분산을 하고자 「지방공업개발법」(1970)과 「공업배치법」(1976)을 제정했고, 1964년엔 대도시인구집중방지책도 실시했다. 그러면서 인천, 수원, 평택 등 지방으로 공장들이 분산되었다. 동시에 계획입지의 방식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는데 「수출산업단지 개발조성법」, 「도시계획법」에 따라 구로와 영등포 공단을 건설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각종 과밀억제정책으로 인해 입지 조건이 불리해지면서 서울의 공업이 영세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0년대와 상황이 달라졌고, 가내 영세공장, 임대공장, 무허가 영세공장 등의 형태가 늘어났다. 즉, 1970년대의 서울은 중화학공업 입국의 소외 지역이었고, 동시에 영세한 무허가공장이 난립한 지역이었다. 이때 섬유·의류공업, 종이·인쇄·출판공업, 금속·기계공업은 여전히 고용기여도를 가지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다. 네 번째 시기는 구조조정기의 서울공업이다. 이때는 1970년대 말로 중화학 투자로 인해 통화가 팽창하고, 1인 소득 성장으로 소비 및 부동산 수요 급증, 임금상승과 인플레이 가속화, 중화학 부문에 투자 편중으로 산업구조가 왜곡되던 시기이다. 따라서 총 수요 억제정책 발표하지만, 석유파동과 대통령 시해사건 그리고 벼농사 흉작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당시에 실시했던 5차 경제 조정기 계획은 안전성장과 부문 간·지역 간 균형성장을 목표로 했고,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이 지속되었다. 1977년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 계획에 이어 1981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마련했다. 이때가 바로 무등록 영세공장이 수적으로 늘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6차 계획은 1985년부터 나타난 3저 호황과 지역 간 형평정책에 힘입어 낙관적 계획을 수립했을 때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을 재구조화하려고 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종래의 자본집약적 하드웨어 사회에서 지식정보 집약적 소프트웨어 사회로 이행하는 탈공업화가 본격화되었고, 대규모의 생산공장이 서울에서 서울 외곽 수도권으로 확산했다. 수도권 억제정책으로 무등록 영세공장은 생명을 거듭했지만 전자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통해 서울의 특화산업과 특징을 보면, 노동집약적이고 낮은 고정 자본 투자 그리고 지가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종이·인쇄부문과 섬유·의류 부문이 고성장했고, 지식산업으로 재구조화되면서 전기전자·기계·조립금속 부문이 점차 무대로 등장했다. 하지만 서울 중심부, 영등포, 구로, 성동구 등의 공업지역은 노동집약적 영세업

체가 계속 확대되었다.

2_서울시 도시제조업의 규모 변화

소공업은 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5개를 제외한 19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공업이 전체 사업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양적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관리의 측면에서 공업억제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온 소규모 제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우선, 전국 소상공인의 비중을 살펴보자. 소상공인 사업체의 비중이 85%~90%이라는 사실은 한국 기업체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하지만 소상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36%~45%이라는 점은, 즉 중기업과 대기업 종사자 비중이 55%~64%라는 점은 이들 사업체의 비중이 전체 사업체의 10% 정도밖에 안됨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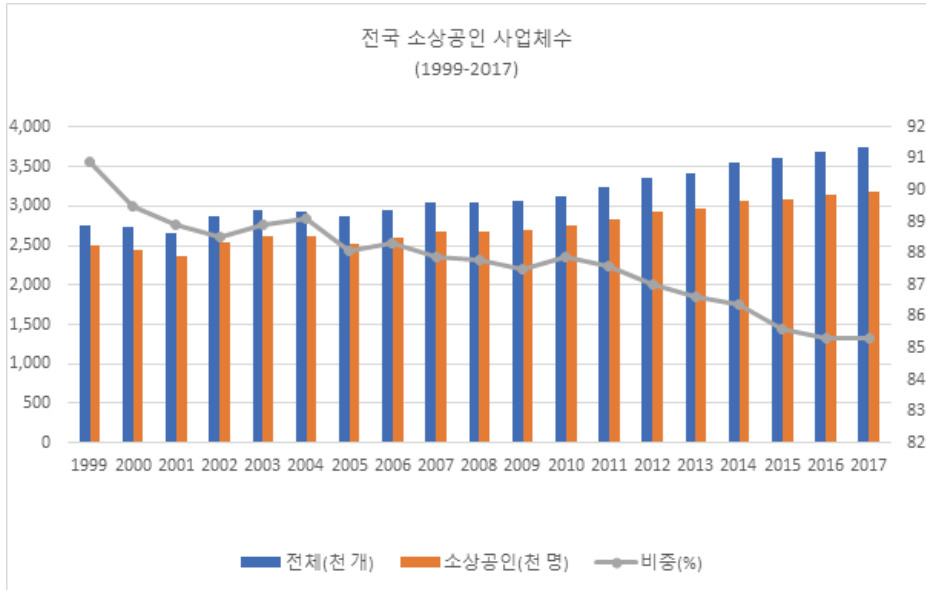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1인 자영업자라는 사실이다. 1999년 이후 전체 사업체와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2000년과 2001년 그리고 2004년과 2008년을 보면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조금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과 2001년은 신용카드 대란 바로 직전이고, 2004년과 2008년 사이는 세계금융위기의 시기라는 점을 상기하면, 전체 기업체 수가 감소한 사회적 이유를 알 수 있다. 눈여겨볼 점은 소상공인의 비중 변화이다. 1997년 IMF로 인해 전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났는데, 그 이후 소상공인의 절대적인 양은 늘어났지만 전체 사업체 대비 소상공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이다. 그래서 1999년 사업체 수 90.9%와 종사자 수 45.5%였던 비중이, 19년 뒤인 2017년에는 각각 85.3%(-5.6%)와 36.8%(-8.7%)의 비중으로 감소했다. 이는 1인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 3-1] 전국 소상공인 현황(1999~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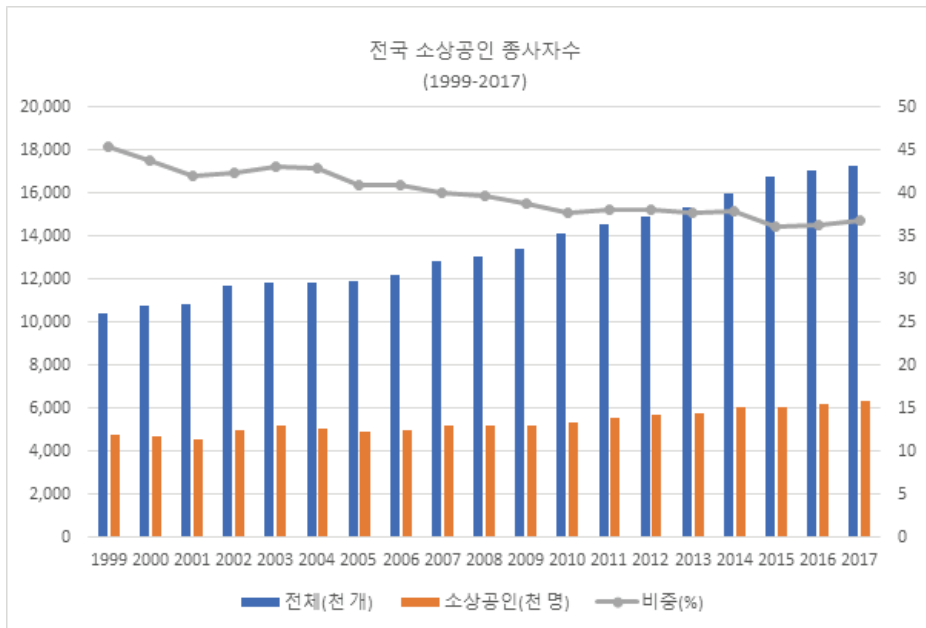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천 개)	소상공인 (천 명)	비중 (%)	전체 (천 개)	소상공인 (천 명)	비중 (%)
1999	2,759	2,508	90.9	10,425	4,744	45.5
2000	2,730	2,443	89.5	10,769	4,727	43.9
2001	2,659	2,363	88.9	10,876	4,575	42.1
2002	2,862	2,532	88.5	11,738	4,977	42.4
2003	2,940	2,612	88.9	11,870	5,199	43.1
2004	2,927	2,609	89.1	11,824	5,077	42.9
2005	2,868	2,527	88.1	11,902	4,883	41.0
2006	2,940	2,597	88.3	12,234	5,019	41.0
2007	3,049	2,682	87.9	12,818	5,228	40.0
2008	3,047	2,675	87.8	13,070	5,195	39.7
2009	3,069	2,686	87.5	13,398	5,218	38.9
2010	3,125	2,749	87.9	14,135	5,334	37.7
2011	3,235	2,835	87.6	14,534	5,549	38.2
2012	3,354	2,919	87.0	14,891	5,677	38.1
2013	3,419	2,962	86.6	15,345	5,778	37.7
2014	3,545	3,063	86.4	15,962	6,046	37.9
2015	3,605	3,084	85.6	16,775	6,066	36.2
2016	3,676	3,137	85.3	17,051	6,202	36.4
2017	3,737	3,188	85.3	17,294	6,365	36.8

* 2015년부터 중소기업 기준이 '종사자'에서 '매출액'으로 변경됐으므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단순비교할 수 없음.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고,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5인 미만(기타 업종)인 기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준 변경은 소상공인 집계에도 영향을 미침.

출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그림 3-2]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수 변화(1999-2017)



[그림 3-3] 전국 소상공인 종사자 수 변화(1999-2017)

다음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비중이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비중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종사자 수 비중은 30%를 맴돈다. 즉, 서울시의 소상공인 비중은 전국 소상공인 비중에 비해 약간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서울시 전국적인 차원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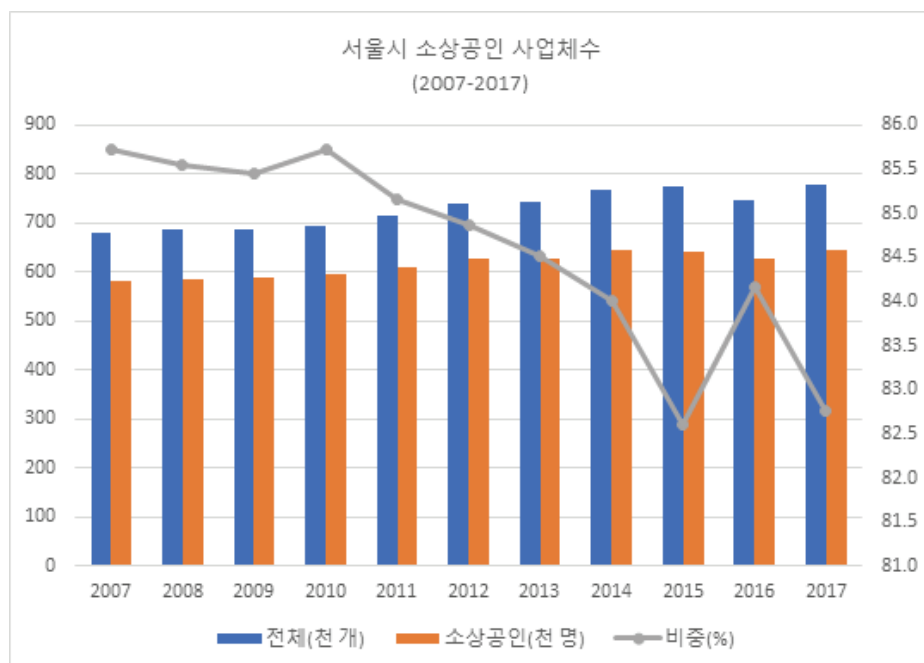
서울시 사업체 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의 비중은 2007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다 2010년 아주 미약하게 0.3% 정도 상승했지만, 다시 2015년까지 감소한다. 2015년부터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변동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과 2016년 사이의 변동은 장기적인 추세 속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표 3-2] 서울시 소상공인 현황(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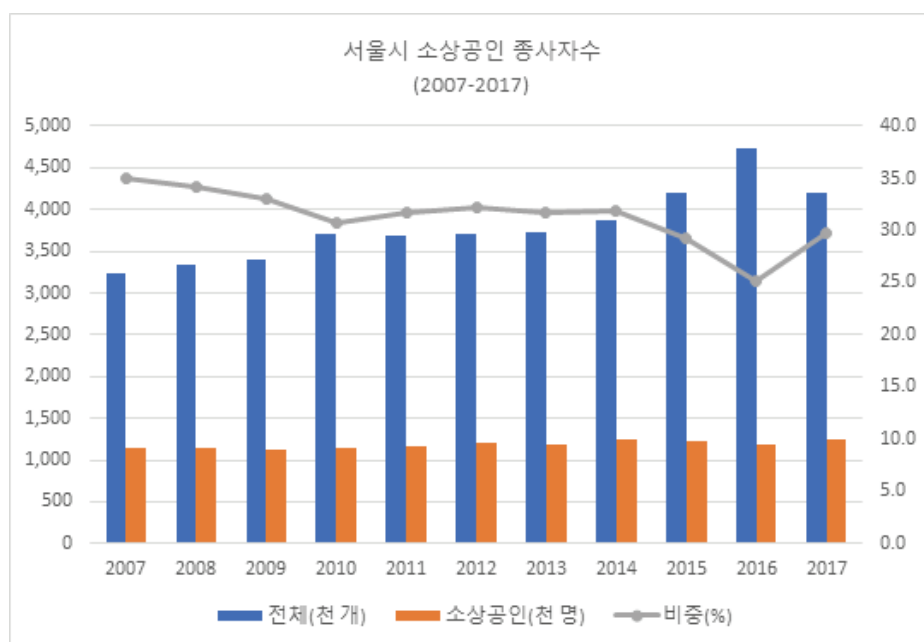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전체 (천 개)	소상공인 (천 명)	비중 (%)	전체 (천 개)	소상공인 (천 명)	비중 (%)
2007	679	582	85.7	3,245	1,138	35.1
2008	685	586	85.5	3,346	1,142	34.1
2009	687	587	85.4	3,407	1,127	33.1
2010	693	594	85.7	3,700	1,137	30.7
2011	714	608	85.2	3,696	1,171	31.7
2012	740	628	84.9	3,712	1,197	32.2
2013	743	628	84.5	3,734	1,187	31.8
2014	769	646	84.0	3,882	1,238	31.9
2015	776	641	82.6	4,194	1,226	29.2
2016	745	627	84.2	4,743	1,189	25.1
2017	777	643	82.8	4,196	1,246	29.7

*기준 변경으로 2015년 자료부터 2014년 이전 자료와 단순비교 불가능.

출처: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



[그림 3-4]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 변화(2007~2017)



[그림 3-5]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수 변화(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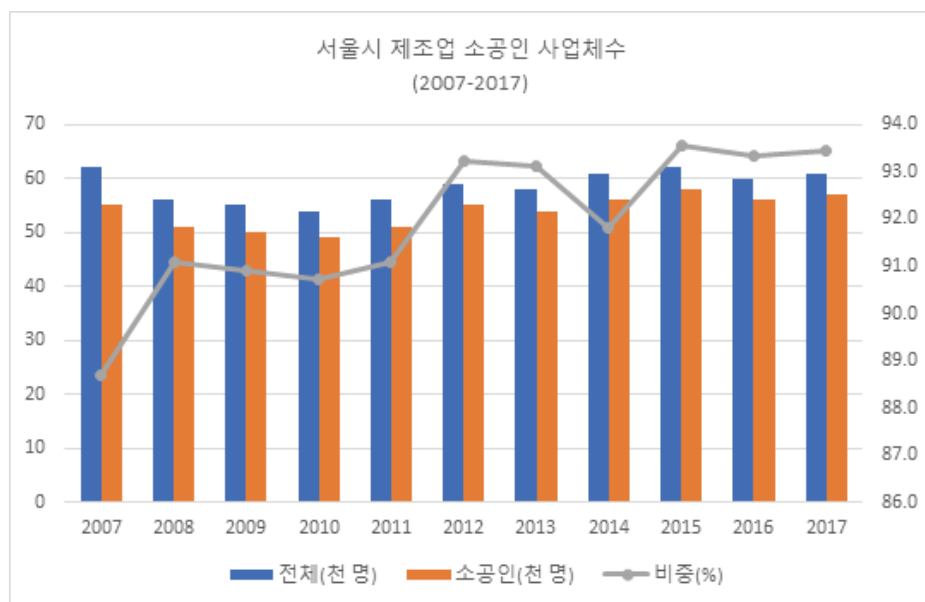
다음은 서울시 제조업체 중 소공업의 비중이다. 이러한 비중을 보면, 서울의 대부분의 제조업이 소규모 제조업이고 절반 이상이 이러한 소규모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업체 수로 보면 지난 10년간 소공업의 비중이 90%를 웃돌고 있고 2015년 이후부터는 9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를 보면, 소공인이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정도가 된다. 2011년부터 전체 제조업 종사자 수 대비 소공인의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2017년에는 62%를 달성했다.

[표 3-3]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현황(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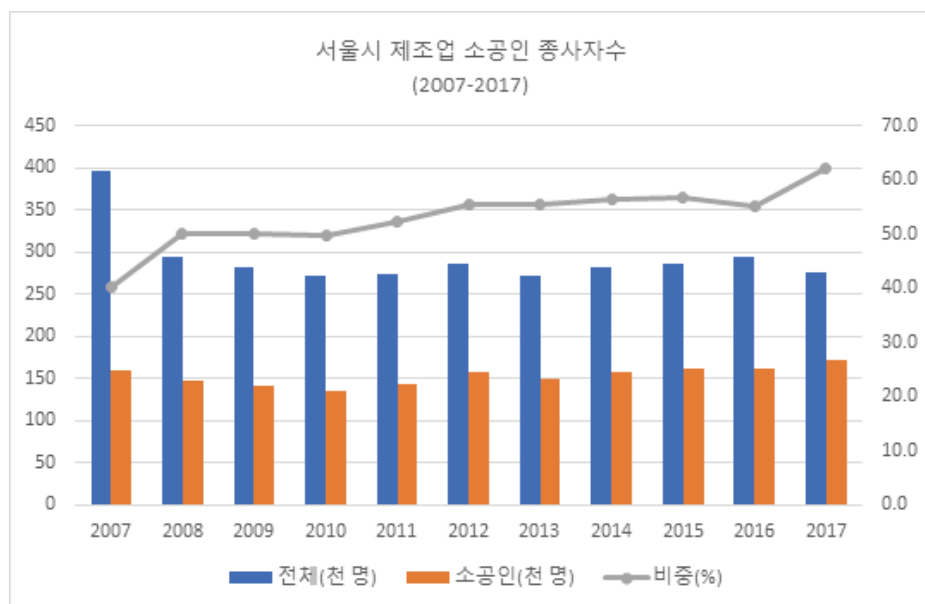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제조업	소공업	비중	제조업	소공업	비중
2007	62	55	88.7	397	159	40.1
2008	56	51	91.1	294	147	50.0
2009	55	50	90.9	282	141	50.0
2010	54	49	90.7	271	135	49.8
2011	56	51	91.1	273	143	52.4
2012	59	55	93.2	285	158	55.4
2013	58	54	93.1	271	150	55.4
2014	61	56	91.8	281	158	56.2
2015	62	58	93.5	285	162	56.8
2016	60	56	93.3	294	162	55.1
2017	61	57	93.4	276	171	62.0

*기준 변경으로 2015년 자료부터 2014년 이전 자료와 단순비교 불가능.

출처: 〈서울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통계〉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s://data.seoul.go.kr>)에서 가공



[그림 3-6]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사업체 수 변화(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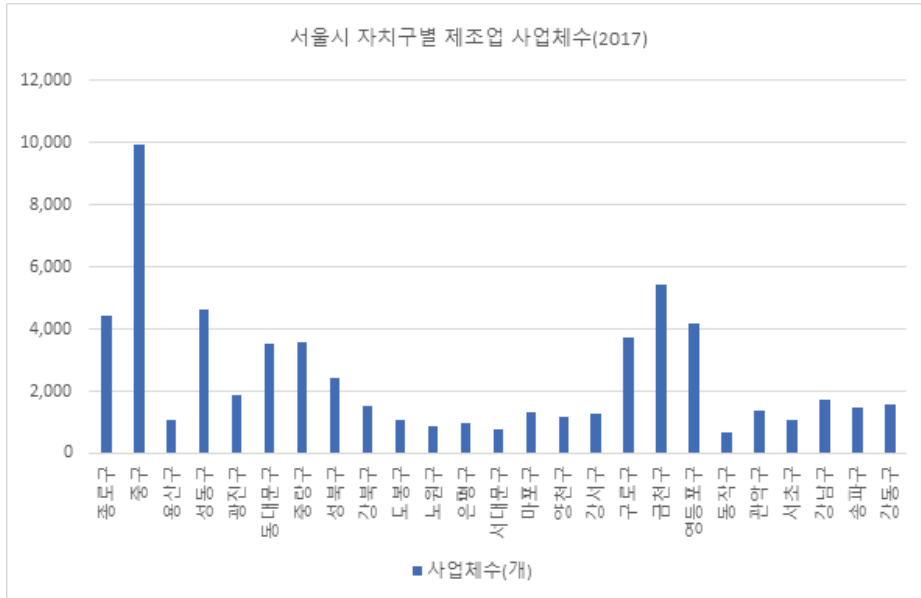


[그림 3-7] 서울시 제조업 소공인 종사자 수 변화(2007-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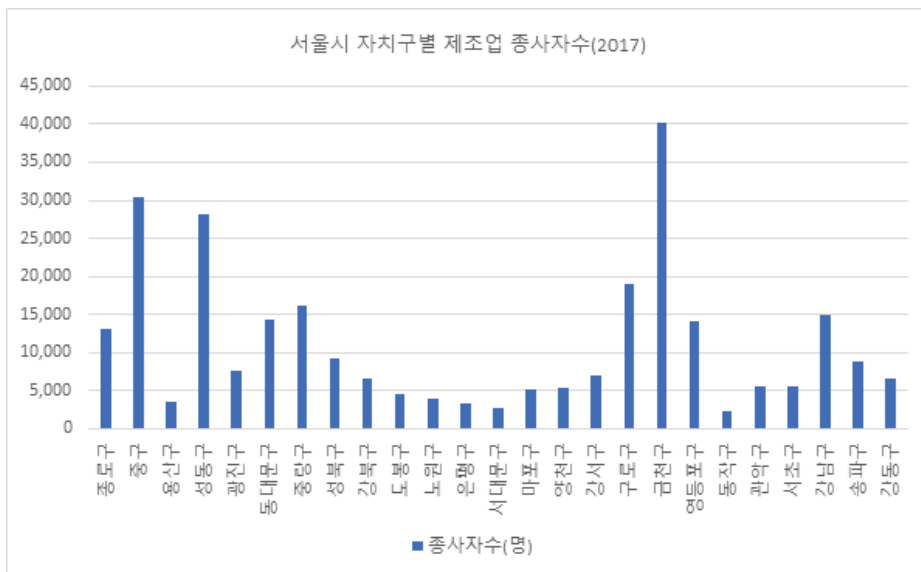
자치구별로 제조업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자치구별 제조업 현황을 보면 중구(16.2%)가 가장 제조업체가 많고, 다음으로는 금천구(8.8%), 성동구(7.5%), 종로구(7.2%), 영등포구(6.8%)의 순으로 사업체가 많다. 이러한 현황은 앞서 1960년대 공업 입지가 중구와 종로구에 해당하는 청계천 일대와 영등포 지역에 많이 분포했다는 점과 연속성을 갖는다. 종사자 수로 보면, 금천구(14.4%)가 가장 많고, 중구(11.0%), 성동구(10.1%), 구로구(6.8%), 중랑구(5.9%) 순으로 종사자가 많다.

[표 3-4]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현황(2017)

자치구	사업체 수(개)	백분율(%)	종사자 수(명)	백분율(%)
종로구	4,450	7.2	13,078	4.7
중구	9,947	16.2	30,475	11.0
용산구	1,054	1.7	3,446	1.2
성동구	4,612	7.5	28,130	10.1
광진구	1,853	3.0	7,616	2.7
동대문구	3,539	5.7	14,237	5.1
중랑구	3,578	5.8	16,259	5.9
성북구	2,424	3.9	9,199	3.3
강북구	1,541	2.5	6,621	2.4
도봉구	1,090	1.8	4,556	1.6
노원구	848	1.4	4,042	1.5
은평구	957	1.6	3,266	1.2
서대문구	754	1.2	2,721	1.0
마포구	1,336	2.2	5,121	1.8
양천구	1,190	1.9	5,294	1.9
강서구	1,258	2.0	7,027	2.5
구로구	3,729	6.1	19,002	6.8
금천구	5,412	8.8	40,151	14.4
영등포구	4,186	6.8	14,084	5.1
동작구	651	1.1	2,228	0.8
관악구	1,350	2.2	5,480	2.0
서초구	1,064	1.7	5,666	2.0
강남구	1,707	2.8	14,910	5.4
송파구	1,487	2.4	8,803	3.2
강동구	1,566	2.5	6,508	2.3



[그림 3-8]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사업체 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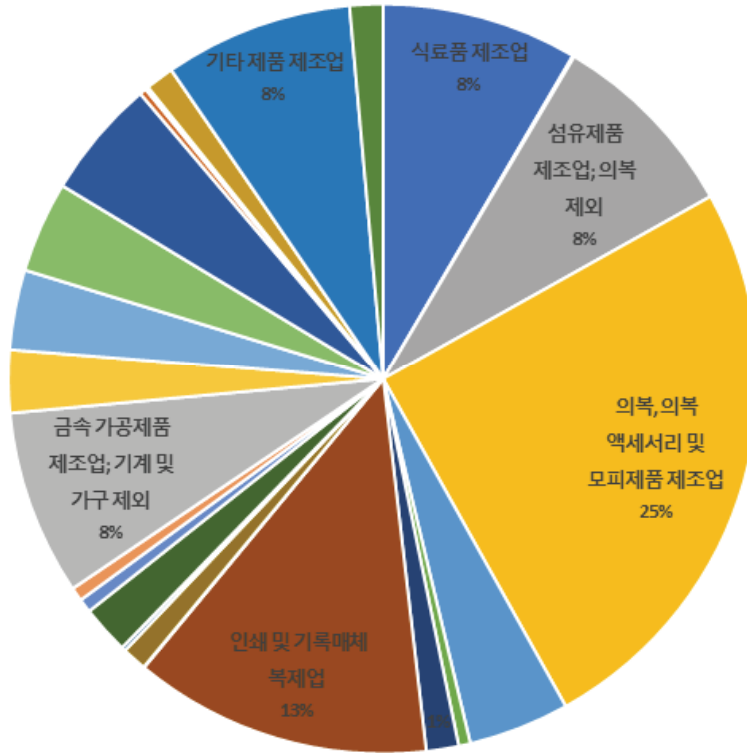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제조업 종사자 수(2017)

서울시의 제조업 업종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25.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2.9%), 식료품 제조업(8.4%), 섬유제품 제조업(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8.0%)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재구성해보면 의류업종이 33.4%, 기계금속업종이 15.7%, 인쇄업종이 1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3-5] 제조업 업종별 규모(2017)

	제조업 업종	사업체 수(개)	백분율(%)
10	식료품 제조업	5,200	8.4
11	음료 제조업	42	0.1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163	8.4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400	25.0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688	4.4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311	0.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60	1.4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7,914	12.9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	0.0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49	1.1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10	0.2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85	2.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66	0.6
24	1차 금속 제조업	365	0.6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4,918	8.0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86	2.7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21	3.4
28	전기장비 제조업	2,416	3.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65	5.1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7	0.3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6	0.1
32	가구 제조업	752	1.2
33	기타 제품 제조업	5,009	8.1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886	1.4
	합계	61,583	100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비중(2017)



[그림 3-10]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비중(2017)

3_청계천·을지로 일대 제조업 현황

도시형소공인들이 종사하고 있는 도시제조업 지역은 어디인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산공간은 어디이고, 어떤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속가공 기술자가 속해 있는 기계금속제조업은 현재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와 영등포 문래동에 집적지를 이루고 있으며, 이전에는 청파동 일대나 성수동 일대에도 업체들이 있었다. 이 중에서 청계천 일대의 기계금속제조업은 고유한 생산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계천에 가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소문이 구전될 정도로 기술력과 생산력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청계천 일대는 크게 청계천 공구상가라고도 불리며,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장사동 전자부품 골목, 예지동 시계골목, 입정동과 산림동의 기계금속가공업, 인현동 인쇄골목 등 구역마다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소업체라는 특성상 대량생산보다는 유연하게 소량생산을 할 수 있고, 업체 간 전문화된 분업을 기반으로 서로 협업하는 고유한 생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빠른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고유한 생산방식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이자 산업생태계로 꼽는다(강우원, 1996; 김용창, 1997; 송도영, 2001; 남기범, 2001; 서울역사박물관, 2010a; 2010b, 심한별, 2013; 전미영, 2020). 또한 아세아상가나 세운상가 같은 전자상가들은 오래 전부터 게임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산업과 대중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되었는데, 이곳의 기술들이 복제나 수리에 특화되어 있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못했던 여러 제품을 복제해서 값싸게 팔면서 대중문화 확산될 수 있는 복제품의 생산기지가 되었다(조동원, 2017; 청계천박물관, 2018).

하지만 2004년 삼일고가도로 철거와 청계천 복원 등으로 기계금속을 다루던 상인들이 자발적·비자발적으로 퇴거하게 되면서 기존의 상공업 생태계가 일부 깨지기도 했다. 또한 기존에 청계천에 일을 맡기던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동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제조업체들을 찾는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물리적 환경이 낙후되면서 70년대 이후부터 계속 이슈가 되었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상황에 놓이면서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더 위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서울시가 이 지역의 역사와 산업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것을 선포하면서 지역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서울특별시, 2017b). 하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은 세운상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 주변 지역을 함께 재생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세운상가 주위를 둘러싼 장사동, 예지동, 입정동, 산림동, 인현동 등이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진행되고 있어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의 소공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형성해놓은 도시제조업 생태계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세운상가 중심의 전자·전기 업종을 제외하고, 입정동과 산림동의 기계금속제조업과 예지동의 시계수리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소공인들이 처한 상황이다.

우선 이 일대 제조업 중 금속가공제조업의 현황은 중구청 시장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가구, 조명, 조각, 미싱, 공구, 타일도기

에 해당하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을 조사했다. 이중에서 금속가공업체들은 조각으로 분류되었고, 분포도는 아래와 같다. 왼쪽 밀집지역이 입정동이고, 청계대림상가를 두고 오른쪽이 산림동이다.



출처: 메가리서치(2015; 139쪽)

[그림 3-11] 을지로 일대 조각 산업(금형/주형) 업체 분포

이 조사 자료를 통해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속가공기술자는 50대 남성으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증금이 1,000만 원대의 임차매장에서 임대료 90만 원을 내면서, 하루에 혼자서 평균 9시간 정도 일을 한다. 2014년 기준 매출은 1억 2,000만 원 정도 되지만, 실제 수입은 매달 210만 원 정도다. 정기 휴무는 일요일밖에 없고 토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일하러 나오는 경우가 많다. 1일 평균 6명 정도의 손님이 오고 판매 형태는 자사 매출이 전부이다.

04. 소공인의 구술생애사

1_금속가공기술자의 생애

도시제조업 소공인으로서 청계천·을지로 도시제조업 지역에서 금속가공기술자로 살고 있는 전OO의 생애 연표는 다음과 같다.

[표 4-1] 구술자 생애 연표

연도	나이	내용
1952년	1세	보은군 마로면에서 둘째로 출생(아버지 광업 및 농업 종사, 어머니는 주부, 6남매 중 둘째)
1960년	9세	관기국민학교 입학
1963년	12세	국민학교 4학년 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학교에서 특별상 수상
1966년	15세	농사일을 하라는 아버지 때문에 중학교 진학 포기
1968년	17세	연초 서울 상경, 종로 원서동 '동남스테레오'에서 나시오날 전축 판매일 시작(무급) - 1·21사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 상경(1968. 1. 21.)
1968년	17세	초여름, 충무로 '대한분식연구소' 빵 공장 근무(첫 월급 500원)
1968년	17세	겨울, 용산 후암동 '남선스텐'에서 근무. 우라바를 거쳐 시보리를 하기 시작(월급 3,000원) -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아폴로 11호 달 착륙 중계 시청(1969. 7. 20.)
1969년	18세	겨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마공장에서 시보리 기술자로 근무 시작(월급 17,000원)
1971년	20세	신체검사 이후 군 면제. 고향에서 농사일하면서 증봉4H 클럽 및 자치 방법대 활동
1975년	24세	몇 달 연애 후 12월에 결혼
1976년	25세	연초에 첫째 딸 출산
1977년	26세	둘째 아들 출산
1977년	26세	상도동에 임대 집 마련 후 서울로 재상경.
1977년	26세	노랑진 '아산실업'에서 근무하며 자동밥솥 시보리
1978년	27세	영등포 신도림 '국진기업'에서 시보리 기술자로 근무(월급 300,000원) - 기술 응용(3~4개의 철판을 동시에 시보리), 기술문제 해결(24쿼터짜리 대형 시보리 성공) - 출근하면서 박정희 총살 사건 들음(1979. 10. 26.)

연도	나이	내용
		- 코엑스 개관 후 종종 기계 전시 관람(1979. 3.~)
1980년	29세	당시 '국진기업'이 폐업하면서 마지막까지 근무하다 퇴직.
1980년	29세	인천 백석에서 시보리 기술자로 근무(불고기 판 제작)
1981년	30세	고척동 '경호스텐'에서 시보리 기술자로 근무
1981년	30세	고척동 '하이메탈'에서 합금강 주조 기술을 배우며 근무(재료학 공부 및 집진기 제작)
1985년	34세	자녀 교육 때문에 강남 신사동으로 이사
1986년	35세	종로3가 '천수공예'에서 트로피 시보리 기술자로 근무
1986년	35세	보일러 제조 의뢰로 중부시장 인근에서 'XX금속' 창업 - 86아시안게임이 열리던 시기에 창업(1986. 9.~10.) - '동진조명'의 의뢰로 수출조명 제조(총 3명 종사) - 가장 매출이 높았던 시기로 삶에도 점차 여유가 생기기 시작(등산과 사전을 취미로 가지면서 '한국불교예술인모임' 활동 시작)
1990년	39세	주교동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OO금속'으로 상호 변경(시보리 소음 때문에 이전) - 수출조명 주문 감소로 혼자 일하기 시작 - 기술 응용(금형이 필요 없는 공간시보리 숙련) - '거진금속'의 의뢰로 공업용 세탁기 제작
1997년	46세	산림동 현재 위치로 공장 이전(주교동 공장 부지에 소방도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이사) -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겪음. 등산과 불교를 통해 극복 - 공업용 세탁기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큰 시보리를 특화시켜 영업 - 청계고가 철거 및 청계천 복원 사업 시작(2003. 6. 30.~)
2014년	63세	중구청의 '도심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면서 청년 예술가와 협업, '을지유람' 투어 참여 등 활동 확장 - 상하이TV, 일본방송 등 국내외 여러 언론에 시보리 기술자로 소개

2_호기심 많은 시골 소년의 서울 상경

1)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구술자는 1952년 동광이 있고 흑연 광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기대리에서 광업과 농업을 겸하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의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구술자의 기억에 따르면, 주민이 총 700명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당시 마을의 지주를 중심으로 소작농들이 모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가난과 배고픔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아주 경제적인 건 너나 없이 절약했어요. 그때 시골 동네 그 구조가 동네마다 최고 갑부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동네 갑부가, 잘 사는 사람. 지주, 쉽게 말하면 지주라 그래야겠죠. 그 사람을 위주로 조금씩 농사, 소작농들이 많았죠. 이제. 그때 농사 구조가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피폐해가지고 전쟁 직후에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유년기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웃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도 많이 생각나네요, 그죠? 새벽에 배가 고파서 징징거리고 울었던 기억나요, 이제, 어릴 때니까. 그 뭐, 동네 지주 아니고선 다 배고프던 시절들이니까, 다 뭐 점심에 고구마 하나 먹고 끼니 때우고 이런 시절이니까. 그때 그 어린 게 배고프다고 하니 우리 부모 속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죠? 매어지겠죠? 나도 자식을 키우는, 키웠으니까.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절 하면. 아휴.”

구술자는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은 개구쟁이이자 말썽쟁이였다고 회상한다. 나뭇가지로 화살을 만들어서 쏘고 다니기도 하고, 고무충 같은 걸 만들어서 동네 친구를 맞추기도 하고, 나무토막을 잘라서 이것저것 만들기도 할 만큼 손재주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자신의 장난 때문에, 마을에서 부모님이 많이 불러 다니게 할 만큼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고 회상한다.

그러다 1960년 4.19혁명 즈음 관기국민학교에 입학한 구술자는 초등학교 4학년 방학 때 마을 동광에서 나오는 흙으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실제 조각상과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서 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주는 특별상을 받았다. 3학년 때까지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지만, 이 특별상을 받을 것을 계기로 자신이 손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공부와 만들기에 관심이 생겨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한다. 그는 지금도 이 일을 인생 전환을 만든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뭐 칭찬은 그래도 춤을 춘다는 말도 있죠?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있죠? 동상 그 사진이 있었어요. 책에, 도덕책에. 이렇게 있는 거데.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흙으로, 찰흙으로 바짝 말려갖고 방학 숙제라고 하였던 기억이 나요. 송석채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기억, 이름도 기억나네요. 전교에 1,200명이 있었어요, 한 학교가. 그 앞에 월요일에 조회를 하는데 나를 불러내갖고 특별상을 줬어요. 상장과 상. 상을 거 이제 왜 줬냐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모양이나 근육이라든가 얼굴, 자세라든가 팔의 근육이라든가 뭐 종아리 근육, 그런 걸 아주 똑같이 묘사했어요, 내가 어려서. 내가 하여튼 소질이 있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공돌하게 해서 고걸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중략) 나중에 서로 얘기를 하다. 동창회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너 그때 그 잘 만드는 애’, ‘그림 잘 그리는 애’, 이런 식으로. (중략) 그림과 만드는 데 약간의 손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신문지상에 나오면 그 생각이 납니다. 내 인생을 바꿔준 이 그림이라고, 그것이. 그 칭찬을 한 번 들으니까 자꾸 만들게 되고 만드는 걸 좋아하게 되고.”

하지만 구술자의 아버지는 가족의 장남인 구술자에게 생계를 위해 중학교 진학 대신 농사일을 강요했다. 그는 반발심이 있었지만 결국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농사일을 시작하게 된다. 학력이 중요한 개인의 자산으로 평가받는 한국에서, 부모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 교육을 포기하게 된 구술자는 성인이 된 이후 학력이라는 장벽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하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모를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발현된다.

“그때는 그러니까 거 지금 내 생각이지만 부모님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정도로. 그 내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 잘하고 그랬으면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일만 가르치려고 했던 만큼,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중략) 뭐 한때는 그게 원망도 되고 그랬었죠.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서 조금 있을 때만 해도 박정희 군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조건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을 우선을 치고, 학교를, 최소한 학교를, 학력을 최고로 쳤어요. 최소한 어디 갈려 그러면, 중졸 이상, 고졸 이상, 그 항상 구인란에 붙을 정도로. 그때 원망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참, 그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 우스운 얘기죠.”

“청소년기에 고생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 아,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르죠. 새로운 세계를 계속 접하잖아요. (중략) 이제 그 조금 더 커서 뭐 원망스러웠던 게 정부, 무조건 내가 호기심 많았잖아요. 이걸 벗어나 댄 걸 해보려고 막 댄 데 원서를 지원하고 알아보고 그러면 맨 저거예요. 거...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중졸 이상, 고졸 이상. 학력. 개발도 써먹지도 않는 학력은 왜 이렇게 집어넣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강제적으로 농사일을 하던 구술자는 그 일이 너무 하기 싫었고, 1968년 17세가 되던 해가 1년 위 선배 친구가 있는 서울로 도망치듯 상경한다. 이를 계기로 호기심 많은 시골 소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2) 모든 게 다 새롭고 좋던 서울 생활

17세에 서울에 올라온 구술자는 20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처음에 자리를 잡은 곳은 종로 원서동에 있는 ‘동남 스테레오’다.⁷⁾ 동남스테레오는 일본에서 들어온 나시오날 전축을 조립해서 판매하던 곳인

7) 구술자에 따르면, 당시 전축 판매의 두 경쟁 업체가 있었다. 하나는 구술자가 일했던 종로의 동남스테레오이고 다른 하나는 신촌에 있는 독수리전축이다.

“면담자: 그러면 거기서 포장해서 파는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데, 그는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박스에 포장된 전축을 리어카에 싣고서 배달하는 일을 했다. 종로에서 용산, 미아리, 구로 등으로 왕복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호기심 많은 시골 소년이 본 서울의 풍경은 모든 게 신기했고 재미있었다.

“거 우리 1년 선배 친구가 이제 서울에 먼저 올라왔어요. 원서동 전축 판매하는 데, 일본 그 나시오날 조립해서 판매하는 덴데. 구로동은 완전히 강 번두리였어요, 그때만 해도 구로동이. 군부대, 해군부대가 육군부대가 거 구로동에 부대도 있었고 거기까지 가서 팔았던 기억도 나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좀 올라오라고 했던 거죠. (웃음)”

“하여튼 호기심에 재미는 있었어요, 그것도, 어려도. 그게 재밌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어릴 적에. 그 카네기 같은 책을 읽어보면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 주인공은 즐겼더라고요. 환경을, 적응을 되게 쉽게 하고.”

동남스테레오는 원서동 70번지에 위치했고,⁸⁾ 대략 10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숙식을 해결했다. 막내였던 그는 일터 식구들의 잔심부름을 많이 했고, 그럴 때마다 주변에 있는 ‘감로양행’이라는 주스 공장에서 일하는 누나들이 그를 많이 챙겨줬다고 한다.

서울에 상경한 지 두 달 정도 지났을 1968년 초여름, 동남스테레오에 포장박스를 납품 하던 박스공장에 근무하는 한 형이 구술자에게 빵공장을 소개시켜줬다. 충무로 대한극장 뒤에 있는 대한분식연구소라는 빵공장이었는데,⁹⁾ 일하면서 빵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시골 출신인 그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여겨졌고 그는 거기에서 500원이라는 첫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구술자의 회상에 따르면 당시 대한극장에서 〈아라비아 로렌스〉 같은 영화가 한 편에 700원이었다고 한다.

구술자: 완전히 조립을, 뭐 조립만 하게끔 다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면답자: 일본에서. 구술자: 껍데기에서부터 내부 스피커까지. 근데 그때 당시에 동남 스테레오하고 뭐가 있었냐면, 독수리 뼈 전축이라고 있었어요.

면답자: 독수리뼈 전축이요?

구술자: 예, 신촌 쪽에. 그거하고 두 군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경쟁사가.”

8) 지금도 원서동 77번지는 상경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곳으로 전해진다. 면답자는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원서동 77번지에 대한 사진을 구술자에게 보여줬고, 구술자는 그 사진을 보고 당시의 원서동 풍경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지냈던 그 장소들을 묘사했다.

9) 구술자가 기억하고 있는 1968년 당시의 빵공장은 대한분식연구소, 서울분식, 명보제과 이렇게 세 개다. “그 대한분식연구소라고 필동, 대한극장 바로 뒤에요, 거기. 대한분식연구소, 거창하죠. (웃음) 제과 파는 사람이 몇 개 안 됐어요. 신영균이 하는 명보제과 있고, 인현시장에 서울분식이 있었고, 우리 대한분식연구소가 있었고 거 왜냐면 사람들이 와, 오고 가고 했으니까 고거 세 가지뿐이 생각이 안 나요. 없어요, 다른 데. 그러다 인제 뭐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생겼지만은 명보제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거 나중에 들리더라고요, 신영균이가.”

“그 옆에 바로 이제 박스 공장 있죠, 종이박스 공장, 포장박스 공장이 있었죠. 그 형이 나한테 잘했어요, 아마.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누나가 가끔 왔다가니까 이 사람이 흑심이 있었던 거죠, 이제. (웃음) 그 빵 공장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대한극장 있는 데. 그 원서동에서 쪽 나오면 대한극장 나오잖아 요, 그죠? 쪽 가면 그냥 을지로 청계천 다 지나서. 그러고 나서 가면, 함 갔더니 참 좋더라고, 빵도 마음대로 먹는 것 같고 빵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거야, 그때 어릴 때니까. 그때 뭐... (중략) 그래 이제, 갔는데 인사가 빵 먹으란 소리하고, 나중에 그 형이 그러더라고, 거기 있어 봐야 고생만 하고 여기서 하는 건 어떨겠느냐고.”

“그게 처음에 가면 참 좋더라고, 처음에 가니까. 왜 좋냐면요, 그 시골서 상상도 못하던 맛있는 게 많잖아요. 계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시골서 계란도 맘대로 못 먹었어요, 우린. 있어도 어른들이나 엄마가 챙겨주고 했지. 우리는...”

하지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빵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기쁨은 금세 사라졌다. 빵 만드는 일이 자기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하던 중, 그 박스공장에서 일하던 형이 또다시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다. 용산 후암동에 있는 남선스텐이라는 주방용품 생산업체였고,¹⁰⁾ 그는 여기에서 시보리 기술을 처음으로 접한다.

3) 후암동 남선스텐에서 흥은동 연마공장으로

1968년 겨울, 구술자는 남선스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 남선스텐은 시보리부와 원판부가 있었는데, 남선스텐에 취직하자마자 곧바로 시보리 기술을 배운 것은 아니다. 그는 ‘우라바’라고 부르는 기술자들의 보조일을 하게 되는데, 보조일 중에서 그가 맡은 작업은 철판을 작두로 동그랗게 자르는 일로 ‘마루기리’라고 부른다. 시보리부가 아니라 원판부에 속한 일이다. 지금은 원형절단기나 프레스 같은 기계로 철판을 깔끔한 원으로 잘라내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직접 콤파스로 원을 그린 뒤 작두를 이용해서 최대한 원 모양으로 철판을 잘라냈다.

“난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웃음) 거 기술자들 일하는 거 보조해주는 거였어. 일본말로 우라바. 이렇게 저 우라가 짝 가면 울으니까. 나무를 딱 대주는 게 있어요, 올라올 때마다. 비닐 판지 주고 하는 거. 나중에 그런 사람을 했지만. 그거 할 때 어느 정도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오야지 우라바를, 보조를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어리니까 힘이 좀 약했던 모양이지. 그걸 안 시키고 이제 다른 거, 그때는 그 프레스가 없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 판을 작두로 다 잘랐어요. 콤파스로 동그랗게 다 그려갖고 작두로 잘라갖고, 또 마루기리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잡고 작두로 동그랗게 오렸어요. 엄청 수동적이고 원시적이지. (중략) 그 큰 판을 자르고, 육각으로 잘라놓으면 그걸 다 오리고,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저 시보리 대주면, 시보리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판을 처음에 가니까, 판을 펴주고 하는 거, 작두로 자르면 울거든, 이렇게 찌그러지거든. 완전 꼬부라지고 하는 거니까 반듯하게 펴줘야 이제 동그랗게 오리는 데, 필요, 좋거든.”

10) 남선스텐은 현재 남양스텐이라고 불리는 주방용품 업체이다.

하지만 윤이 따라줬는지 그는 7개월 만에 우라바를 그만두고 시보리를 시작하게 된다. 문제는 누가 기술을 알려준 게 아니라 어깨 너머로 봐왔던 것을 그가 시도해본 것이다. 우선 밥그릇 뚜껑 같은 작은 시보리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점점 큰 시보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처음 시보리를 하게 된 그는 시보리 선반 기계를 통해서 원형의 철판을 오목한 밥그릇으로 만드는 기술 자체가 신기했고, 서울에 올라온 일 자체가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즐거웠다.

“근데 퍼주고 했던 거 하다가, 그거 하다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바로 내가 조그만 시보리를 시작했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주방 뚜껑 그릇, 밥그릇 뚜껑. 그걸 시작해갔고, 이제 시키니까 잘했던 모양이죠? 제일 초보 시보리할 때 그거 시키더니 이제 밥공기, 스텡으로 만드는 밥공기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도 잘했던 모양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보리가 조금 되는 거지.”

“호기심이 생겼고, 만드는 거니까, 또 희한하게 뭐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철판이 그릇이 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중략) 그 무렵에 이제 막 서울 올라온 게 너무 잘한 것 같고 (웃음)”

당시 그는 3,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고,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 달 착륙 장면을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시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홍은동 터미널 쪽에 있는 연마공장에 정식 시보리 기술자로 취직하게 된다. 남선스텐에 연마 일을 해주던 사람이 자기 공장에 시보리 기계를 두고 그를 고용한 것이다.

“남양스텐에 연마를 다 해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배우. 그 사람이 인제 공장을 배우를 하면서 홍은동에 시보리 기계를 네 대를 놓고서 나를 찾아온 거지, 이제. 이름도 안 잊어먹어, 그 양반. 한무연 씨라고 (웃음)”

그는 홍은동 연마공장에 처음으로 시보리 기술자로 고용되었으며 이때부터 기술자로서 정체성을 가졌다고 회상한다. 가난한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그에게 18-19세의 나이에 기술자로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었다. 그는 17,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양복도 사 입고 기타도 배우면서 서울에서의 삶을 만끽했다.

면담자: 기술자로서 뭔가 일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부터예요? 국제금속에서 일하실 때부터인지 아니면 홍은동.

구술자: 홍은동에 있을 때. 예, 그때부터 하여튼 뭐 나를 빼갈 정도였으니까, 사람이.

면담자: 그럼 그때 기술자로서의 정체성?

구술자: 그렇죠, 뭐 그렇죠, 정체성이란 걸 느꼈죠. 그때 뭐 어린 게 스무 살도 안 된 게 양복 입고 딱 시골이랑 왔다 갔다 하니까 돈 잘 버는 걸로 소문이 나가지고.

면담자: 그때는 기술자, 그렇게 시보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시선?

구술자: 어우, 좋았어요. 왜냐면 빵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 돈을 잘 번다 그 얘기죠.

"17,000원 받았으니까. 양복, 순모 양복 깎으로 해가지고, 최고 비싼 걸로 양복을 맞추면 한 12,000원 했거든요. 아주 순모, 옛날로 말하면, 순 양털로 만든 것이 있어요. (웃음) 그걸, 내가 양복을 맞춰 입고, 겹멋이 들어서 기타를 배우고 그럴 때가 그때예요."

구술자는 1968년 초 17세에 서울에 상경해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3년 동안 네 곳의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로망의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 특별상을 수상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1968년 말에 취직한 남 선스텐에서 어깨 너머로 시보리 기술을 익히게 되고 기술자로서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다. 그리고 가난했던 시골 소년에서 벗어나 도시적 삶의 방식을 익히게 된다.

3_더 나은 임금을 향한 이직과 기술 숙련

1) 군 면제, 연애, 그리고 결혼

구술자는 20대가 되자 신체검사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학력 미달로 군 면제를 받고 입소해서 기본훈련만 받고 전역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는 군 면제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군 면제에 대해서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사이에 4H클럽 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 몇 년을 연애했다 24살 겨울에 결혼식을 한다.

"군대는 못 갔어요, 그래서.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학력 미달이라. 학력이, 그것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었어요. 왜냐면 그 시대만 해도 우리처럼 이렇게 군부대 들어가서 기본훈련만 받고 면제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안 좋게 봤죠, 이제. 아래로 봤죠."

"내가 기타를 켰다 그랬죠? 시골 갔더니 콩쿠르대회를 한다고 친구들이 기타를 켜달래요. 기타 약간 배운 거 갖고 남사스럽잖아요,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자꾸 사정을 해서, 그때 뭐 돈 주고 부를 그런 악단도 없었죠. 부를 돈도 없었고, 시골에선. 이제 기타를 켜달라는데 해주다 보니까, 저기 앰프 소리가 안 나니까 앰프 대가리를 대에서 빼갖고 통기타 속에 넣고 반주를 맞춰주는데, 소리가 커요, 제법 그렇게 되면. 올리니까. 맞춰주는데, 어떤 여자가 올라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근데 그때는, 거 시골서 살 때는요, 등수 같은 거는 다 조작을 했어요. (웃음) '애 1등 줘야 되겠다.' 뭐, 심사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 여자가 준결승까지 올라왔고, 계기가 돼서 만났죠, 그때. 그랬던 기억나요..."

“신체검사 때문에 내려가서 거기 있을 때 그 여자를 또 보게 됐어요. 어디서 봤느냐면 저 왜 4H클럽이라는 걸 그때 막 열심히 했는데, 동네마다, 4H클럽, 군 연합회, 몇 년 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4H클럽 모임이에요. 군 연합회 그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포크댄스라는 걸 추고 그땐 저 주재님께 그런 걸 시키더라고요, 우리 손윗사람들이 우리를. 포크댄스고 이러는데 그 여자를 또 만났어요, 이제. 내가 자주 밀어붙여서 오락부장이, 잠시 고때. 오락부장이 서로 돼 갖고. 아니 그 저 기타 좀 만진 게 흠이 돼서 그렇게 자주 되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군 연합회 할 때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결정적인 게 됐지, 이제. 그래서 결혼을. 우리가 만나는 걸 동네니까 알아요, 금방. 시골 동네, 동네래도. 그 어른들이 나서갖고 중매 형식을 갖췄죠.”

구술자의 아내는 결혼한 뒤 딸을 낳았고, 이듬해에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와 있었을 당시 구술자는 다시 농사를 해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그런 만큼 방황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는 결혼과 자녀 출산에도 크게 심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 보다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서울로 올라올 계획을 세우게 된다.

“큰 심경 변화 같은 건 없었고, 철이 더 들었다는 것도 생각 안 나요, 그때. 내 아이니까 예쁘고 그냥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뭐 그런 것뿐이었지, 서울 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아이들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도저히 교육을 못 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갈등의 기간이었어요, 갈등.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농사를 지으란 아버지가 있고, 난 농사가 싫었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만큼 안 좋았죠. 시골에서는, 거 햇빛에서 일하고 또 보답을 못 받는 느낌이었으니까. 내가 서울에서 또 하던 일이 있고 하니까 그거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라왔죠, 그때. 와서 이제, 서울 생활을 다시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둘째가 100일 정도가 되던 1977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 미리 서울에 올라와 상도동에 월셋집을 잡고 노량진에 있는 이산실업에 취직한 뒤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온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면서 서른 살 안에 돈을 제대로 벌겠다는 다짐을 한다.

“근데 서울로 오면서요 아이 데리고, 내가 먼저 앞에 와가지고 이산실업 알아놓고 이제 방 놓고, 애들하고 마누라 데리고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마누라한테. 내가 서른 살 안에 돈을 못 벌면 한강에 빠져 죽겠다. (웃음) 어떻게 쓸데없는 다짐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스물다섯인가 여섯인가, 그랬어요. 여섯인가, 여섯 말인가.”

구술자는 20살부터 대략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향에 머문다. 하지만 서울에서 생활했던 3년 기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에 비해, 고향에 있던 20대 초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갈등의 기간”이었기 때문인지, 특별

한 일들이 없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20대 초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시기는 아니다.

2) 다시 서울로 올라와 기술 응용 시작

1977년 27살의 나이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그가 처음에 근무한 곳은 이산실업이라는 자동밥솥 개발 및 생산회사이다. 하지만 개발 단계여서 양산을 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개발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사가 문을 닫자 그는 다른 회사를 다시 알아보게 된다.

“이산실업이라는 자동밥솥을 만드는 곳에 들어갔었는데, 개발의 단계 솔이라, 양산된 상태의 것은 아니고, 지금이었던가 하는 문제로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거기는 정리가 되고, 자동 압력솥 이전 단계. 거기에는 이제 응용점이 낮은 금속 있죠? 주석을 이용해서, 그 주석의 녹는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동력으로 사단했다가 개폐를 할 수 있게끔, 보통 다리미 같은 데를 보면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것, 그 차이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꺼졌다 켜졌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주석의 녹는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되게끔 이용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편한 발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100도 되면 딱 꺼지는 것은, 금속의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는 것 있죠? 늘어나는 것이 금속마다 다 다르잖아요? 상당히 적은 스텝은 상당히 적게 나오고, 다른 알루미늄이나 주석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난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녹았다. 응고되었다 하는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불편했죠.”

이런 과정에서 그는 국제기업 산하에 있는 국진기업에 취직하게 된다. 그는 이산실업이 망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난 뒤,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신문기사에서 시보리 기술자를 구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서를 내서 면접도 본 뒤 최종적으로 회사에 합격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 공장에 취직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영등포에 있는 국진기업으로 이직하게 된다. 국진기업은 아랍에 수출하던 믹싱볼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300,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시보리 기술자로 일한다.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기서 시보리 부서에서 사람을 찾았고, 거기 들어갔죠. 사람이 자기가 한 번 방향을 잡았던 것을 버린다는 게 어려운거예요. 내가 여기 가면 보수를 얼마를 받는데, 쉽게 말해서 암묵적으로, 그때 당시의 한 30만 원 받는데, 다른데 가면 10만 원, 12만 원 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 거기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았죠. 호기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일단은 그 남녀들이 다 같이 있고, 막 서로 활발하게 경쟁도 하고 하는 건 재미있었죠. 경쟁에서 지면 재미없었지만 이기니깐. 어떤 게 경쟁이냐 하면, 먼저도 얘기 했지만 하루에 230개씩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어요. 그게 꼭 결정적인 책임은 아니어도, 도덕적인 책임. 내가 오늘 출근을 했으니깐 월급으로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책임. 그 책임의 양이 230개인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일찍 오후에 새참시간에, 간식시간이면 꼭 끝냈으니깐. 끝내고서 다른 사람 하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더니, 그게 내가 특별하게 잘난 것보다도, 남보다도 생각을 더 빨리 한 거죠. 생산의 시간을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듯이, 행동 하나하나를 거쳐야 제품이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 두 번 불필요한 행동이 줄어든면 제품 수량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남보다 앞서 생각을 했고, 현명하다기보다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항상 먼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웃음)”

그곳에서 그는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분량을 시보리해야 하는 조건 하에 다른 기술자들과 경쟁하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 남들보다 빨리 일을 끝내야겠다는 경쟁심이 그에게 새로운 기술 응용을 할 수 있도록 추동했고, 그는 한 장씩 시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겹쳐서 시보리를 하는 방식의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본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회사에서 난제로 남아 있던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일종의 영웅 대접을 받는다. 이때의 기억은 국민학교 4학년 때 로망을 만들어 상을 받았던 시기에 대한 회상과 마찬가지로 구술자 자신에게 꽤 인상에 남는 기억으로 구술된다.

“여튼 그때 나는 일을 항상 재미있게 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일도 그런 선상에서 항상 내가 더 빨리 하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하하. 난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을까를 저들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건이 빨리 나온 거지. 개들은 딱 거기까지만 생각한 거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까. 실행은 못하고 그 차이지. 항상 재미를 느낀 게 그런 면에서. 경쟁에서 이기니깐 재미있었던 거지.”

“24쿼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져다가, 이제 딱 막힌 거예요. 시보리 최고 기술진에서. 난 그냥 회사에서 신참에 속했으니깐 그때까지만 해도, 경력이 있었어도, 이런 경쟁을 잘해서 이겼어도, 신참은 신참 아니겠습니까? 쉽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서게 되면 단장, 팀장의 자존심이 있으니깐. 자존심의 균열이 생기면 안 되니, 신참 놈이 와서 땀짜거리면. 흐흐흐.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나중엔 이 사람들이 고만을 하고, 포기 상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흐흐 나중에는 사무실 최고 금속과 이사래요. 그 공장장님. 이사님이 와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중략) 24쿼터를 일단 400개를 가져다가 손 놓고, 어차피 포기한 상태이니깐 내가 대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한번 해볼까? 그냥 가볍게 눈치 슬슬 보면서 대들었어요. 안 되니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이. 홍종연이라고 아까 그 라이벌 있죠? 그 사람도 포기했지. 나중에 그 사람까지, 해보라고 한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오래 뒀으니깐 근데 개도 못하지. 근데 내가 빨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라 각도 있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각도가 정 90도로 딱 밀어서 숙여야 이렇게 짝 가면서 여기 올라와서, 채울 때도 울지 않고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혹시 각도인가 싶어서, 로라를 끼워해보니깐 각도가 바로 숙더라고요. 로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어서 쳐지는 거죠. 이렇게. 로라를 가져다 한번 끼워봤죠. 이게 딱 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걸로 해보자. 그 때 기계에 있는 로라를 가져다가 데꼬라고 하는데, 고마라고 해요. 내가 쓰던 고마는 작아요. 13쿼터 하는 거니깐. 작아도 큰 차이는 안 나니깐. 내가 물건을 빨리하기 위해서 뾰족하게 안 써요. 뾰족하게 쓰게 되면, 자국이 많이 생기니깐, 약간 뭉툭하게 쓰니까 큰 거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내가 쓰던 고마를 가져다 쓰니깐, 내 우라마 있잖아요, 보조 보조 데려다가 이것 좀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했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퍼져서 다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나오니깐, 그 막 난리가 난 거지. ‘왜! 된다! 된다!’ 하면서 (웃음) 포장반에 아가씨들도 와서 환호성을 지르고 (웃음) 난 점심을 먹은 상태니깐, 하나 되니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오후에 그냥 그걸 계속 한 거예요. 해가지고 오후 늦게 9시까지 하고, 그 이튿날 하고 400개를 했어요. 크니깐 이제 시간이

더 걸리죠. 그때 그 사람들이 감격하던 거 하고, 박수 보낼 때 기분. (웃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건데도, 쟁이들의 기분은 그런 게 좀 많이 달라요. 내가 남이 못한 것을 내가 해냈을 때의 성취. 그 성취가 좋더라고요.”

“3개씩, 4개씩 시보리했던 거,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못하는 얘기죠. 상상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비싼 황동판을 갖다가 불량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상상도 못하는 얘기에요. 그제. 그렇다고 3개, 4개 한꺼번에 몰려서, 딱 몰리면 그냥 자기 멋대로 막 빠져나가거든요. (웃음) 위험하죠. 그러니깐 상상도 못 하는 거죠. 그건. 그러나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걸 접은 거죠. 약간 구부린 거죠.”

하지만 이 국진기업에서도 그는 3년 정도 근무한다. 그 이유는 국진기업이 공장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회상하는 바로는 전두환 정권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서 공장이 폐쇄되고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이러한 회상은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제기업의 일부가 통폐합되는 사건과 연결되는 기억으로 추측된다.

“문을 닫으니까, 근데 난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주더라고. 전 선생은 좀 있어보라고 할 얘기 있다고 부르더니, 이제 저녁에, 저녁을 먹으면서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세후까지 좀 있어달라고 마무리할 때도 이제 사람이 필요하긴 하나. 그래서 한 네 사람인가? 그렇게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러가지고 이제 참 그때 당시에는 주먹구구식이예요. 따지고 보면. 뭐 의무적으로 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망했는데 어떻게 주느냐. 그 순수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노동자들은 순수한 성격에, 아이고 진짜 회사가 망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퇴직금을 받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나오고.”

이렇게 공장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그는 사장의 요청으로 끝까지 남아 일을 처리하고, 당시로는 거의 없었던 퇴직금을 받고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 그 후 그는 불고기판을 시보리 하는 인천 공장에서 잠시 일을 하다, 그 일이 맞지 않아 고척동에 있는 경호스텐으로 이직해서 또 잠시 일을 한다.

당시 시보리 기술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취직하기도 어렵지 않았고, 월급도 다른 기술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그는 성격상 일하면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 해맸다. 그러던 중 고척동에 있는 합금강 제조공장에 취직해 금속재료학을 공부하면서 특수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

3) 합금강 제조로 기술적 성숙

구술자의 30대는 합금강 제조 일로 시작한다. 1980년 국진기업 공장이 문을 닫은 후 몇몇 공장을 전전공금하다 고척동에 있는 하이메탈에 우연히 취직하게 된다. 그는 시보리는 어느 정도 숙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속에 대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던 시기였고

그런 점에서 합금을 만들어내는 합금강 주조 일에 호기심을 갖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된다. 그때 금속재료학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게 되고 실제 기술적인 실천만이 아닌 금속의 주조에 대한 이론적인 원리 또한 학습하게 된다.

“호기심 때문에 ... 고척동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있었죠, 이제. 그땐 아무래도 이게, 특수강이라는 게 궁금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던 차인데. 쇠를 만지다 보니까. 그러가지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나 궁금하던 차에 내가 살던 그 집에서 한참 500미터 정도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특수강. 거기에 가면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궁금증을 풀 수 있을까 해서 갔더니,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구경을 했죠, 그래서 내가. 처음 밖에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 사장이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안에 와서 구경해도 괜찮다고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고철, 탱크 부서진 고철, 뭐 하여튼 별놈의 쇠가 다 있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비행기 프로펠러라던가 비행기 마우라 있죠. 그 금속의 성분이 다 달라요. 비행기 마우라 같은 건 이제, 엉덩이불꽃 나오는데, 거기는 별갈게 달아져도 변형이 안 생겨요. 니켈금강, 니켈강, 니켈강 이런 걸 써가지고 고온에도 이제 견딜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성분 분석하는 데가 따로 있어서. 그걸로 어떤 강종을 만들 경우, 저기 그 성분을 알아야 되거든요. 고철성분을. 이걸 얼마를 녹여서 어떤 금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분을 알아야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하니깐. 성분 분석은 영등포 가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갔다 오고. 그것도 재미는 있었어요, 내가.”

“아 이제 특수강을, 거기서 활동할 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금속의 불도 그런데 다 알아보거든요. 불꽃만 봐도 쇠 강종이 분리가 될 정도로 거기서 많이 내가 숙달이 됐죠. 거기서 내가 또 뭘 알아냈느냐면 쇠물 온도, 쇠물 색깔 있죠. 쇠물마다 녹은 그 색깔이 다 달라요. 45℃, 스텔라이트, 하이스 뭐 쇠물 녹아있는 상태가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느냐면 그다음에 딱 알아보면 불꽃 색깔 있죠. 그거하고 쇠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그걸 개발을 했는데, 그걸 한 것도 호기심 때문이죠. 알아냈는데, 쇠물의 그런 데 딱 대보고, 어느 정도 녹여 보면요, 색깔이 나오겠다 하는 게 나오는지, 답이 나오지. 쇠마다 늘어나는 수치가 다 다르고. 스텔라이트 이런 게 3/1,000이나 늘어나면, 근데 또 다른 거, 어떤 강종은 2/1,000가 되고, 늘어나는 양이. 수축된다고 봐야지. 쉽게 말해서, 쇠물이 수축됐을 때, 그 정도의 수치를 항상 계산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는 하이메탈에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집진기를 만드는 경험을 한다. 합금강을 주조하던 공장이었기 때문에 약품 냄새와 더불어 연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잡기 위해서 사장이 구슬자에게 집진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를 구로동에 있는 공장들에 보내 집진기 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집진기를 설비해서 만들도록 한다. 그는 이 집진기의 원리나 작동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집진기 제작에 꽤 심각하게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진기는 70~80년대 문제가 되었던 도심 공업의 공해 문제와 공해로 인한 민원을 공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계설비였다.

“집진기를 만든 거죠 고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저 뭐가 좀 안개 속이니까. 이 사람이 집진기 큰 공장을 가짜서, 견학을 시킨 거지. 사장이. 그래서 천지산업을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기반시설 하고 여기 하고는 규모 자체가 달라갖고, 그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거기는 어떻게 집진을 했냐면, 커다란 그 탱크에다가, 집진 그 포대가 있어요. 그 광목으로 된 포대가 있어요. 광목 밖으로 새어나갈 거 아니에요. 공기가. 공기는 잡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건 좀 개운치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갖고서 이제 내가 그 완전히 개념을 좀 바꿔가지고, 물론만.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요? 먼지 잔뜩 들어있는 먼지가. 밑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중) 요렇게, 요렇게. 물을 계속 맞으면서 요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덟 층을 돌아 나중에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먼지가 현저하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그 먼지가. 각종 뭐 냄새도 잡히고, 물에. 냄새는 물에 잘 녹거든요. 어떤 냄새든지 물에 잘 녹아요. 그 부분의 약품이, 냄새를 유발하는 약품이, 녹는단 말이에요. 물에. 그 냄새도 잡고 먼지도 잡고 다 잡는 거죠. 이제, 물로 인해서. 그 지그재그로 해서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필터 거쳐서 이제 위로 뽑아내는 거죠.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 시설 만들고 내가 이제. (중략) 고척 그 동네에서 많이 들어오니깐. 민원이. 그걸 해결한 거지 내가 거기서. 근데 그게 이제, 거기서 해결한 것이 그거 한 가지 특이한 거죠. 거기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서 사장이, 이걸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정도니까.”

하지만 이런 시기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합금강 주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일을 하던 도중 불산이 튀겨서 손에 작은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때 합금강을 만드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는 걸 깨닫고서 일을 그만둔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지금의 공장을 창업하게 된다.

4_자영업 기술자로서의 삶

1) 수출조명과 공업용 세탁기 제작

1986년 가을, 그는 을지로 중부시장 쪽에 을지금속이라는 공장을 창업하게 된다. 공장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그가 알고 있던 지인이 보일러 제조를 맡아달라는 의뢰를 그에게 하면서이다. 그는 그런 의뢰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자신이 공장을 운영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시보리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개업하게 된다. 이때 그는 기존에 돈을 벌면서 샀던 집을 팔아 창업자금을 마련했고, 여러 기계들도 성수동과 같은 공업지역에서 직접 주문제작해서 사왔다고 한다. 그리고 알고 지내던 기술자 한 명과 처남과 함께 셋이서 공장을 시작했다.

“보일러 제조 의뢰받으시면서 처음에는 시보리 사업을 시작했죠. 근데 그것도 잠깐 하다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수출 시보리, 수출 조명을 했죠.”

면담자: 기계 같은 거는 성수동 같은 데 맡겨서 제작해 오셨다고.
 구술자: 거기서 갖고 오고 사고.
 면담자: 쓰던 걸 사신 거예요, 아니면
 구술자: 새거.
 면담자: 새거를 만들어달라고 직접 뭐 사이즈나 도면 같은 걸 신청해서
 구술자: 아니 원래 그 기준으로 나오는 걸 샀어요. 샀는데, 그때 그거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때.
 면담자: 얼마예요 그런 건?
 구술자: 이거 뭐 시작해서 하면 공구 하나 사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내가...
 면담자: 근데 저런 공구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잘 가격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구술자: 어떤 거요?
 면담자: 그냥 예를 들면 저 시보리 기기 같은 거나 프레스 기계나.
 구술자: 아, 원절기요? 돈으로 따지면 비싸진 않아요, 만드는 데. 만드는 사람이 비싸게 만든 거지. 쉽게 말해서. 밀링 같은 것도 1,500만 원이면.
 면담자: 음, 비싼데요.
 구술자: 큰 거 막 돌아가는 거. 기계 바깥 것 같아도, 선반도 뭐 몇 백이면, 종고면 몇 백이면 사니까.
 면담자: 그럼 그때 사셨던 걸 지금도 쓰고 계신 거죠, 거의. 그리고 새로 사신 건 없어요?
 구술자: 계속 새로운 게 필요하죠, 조금씩. 금형 같은 것도 계속 깎아야 하니까. 쪼꼬마한 거.

이 당시에 주요 생산 품목은 동진조명에서 주문이 들어온 특수조명이었다. 이는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는 조명으로, 그가 회고하듯이 꽤 오랫동안 자부심을 갖게 해준 제품인 것 같다. 하지만 시보리 소음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들어와서 공장을 바로 옆 주교동 부지로 이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동진조명에서 조명 갖을 자체 제작하게 되면서 일감이 점점 줄어들게 돼 주교동에서 직원들 없이 혼자 일을 하기 시작한다.

“공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저기 김포 쪽으로 가는 바람에 내가. 동진조명. (중략) 자기네들이 시보리 기기를 사서 시보리하는 사람을 구하다 쓴 거죠. 따라가서 싫었어요, 귀찮았어요, 그때는. 답답하게 틀어박히기 싫었어요. 쟁이들도, 내가 하는 얘기지만, 문화생활을 만끽하면서 쟁이를 하면 좋잖아요. 쟁이는 무슨 옛날처럼 한 계단 아랫사람으로 보는 게 유교사상 때문에 그렇지? 미국이나 그런 데 배관공이 얼마나 대접이, 엔지니어들 얼마나 대접을 받는데. 그게 한국에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수출 조명하니까, 그때 한참 하다가 수출 조명, 그러니까 저 중부시장 쪽에서, 을지로에서 한참 하다가 수출 조명 끝나면서 그 사람도 끝났어요. 주교동에서 혼자 있었어요. 수출 조명이 수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끊어지는 바람에 혼자 그, 갑자기 확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두 놈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네 개, 다섯 개씩 한 거죠. 철, 스텝 같은 건 다섯 개가 안 나와요. 05? 04? 신주 특징이 한 번에 짝 올려야 되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강해져야 돼요. 가공 경화가 생겨요. 세 번 가면 터지고 막 그래. 한 번에 가는 거니까 네 개, 다섯 개를 한 번에 짝 올리는 거죠.”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진기업에서 익혔던 여러 장 겹쳐서 하는 시보리를 다시 시작한다. 일감이 줄어들긴 했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양이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 장 겹

쳐서 하는 시보리를 시도한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유연하게 받고서 처리하기 위해서 금형 없이 시보리를 하는 공간 시보리를 연습하기 시작한다.

공간 시보리를 하게 된 계기는 거진금속에서 수출용 공업 세탁기통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면서이다. 그는 비싸게 금형을 만들지 않고도 시보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금형은 어느 정도 대량생산이 필요할 때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형을 꼭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형이 없이 시보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모양의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는 금형 없이도 동일한 모양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동안 공간 시보리 기술을 연마한다.

“그 사람들이 찾아왔죠, 처음에. 큰 거를 찾아온 건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큰 거는 가능하냐고 가능하다고, 이런 작업 다 가능하다가 근데 이걸 진짜로 가능한 걸로 믿고 갔다가 진짜 주문이 온 거죠. 결국 그때 이제 닥치니까 금형 얘기를 한 거죠. 어우 금형은 못 판다고, 할 때마다 길이가 바뀌는데, 그거 다 금형 계속 찢다가 금형 값으로 다 나가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래서. 노력한 게 그때 금형 없이 하는 걸 서서히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금형 없이 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 그냥 안 있고, “야 난 어디서 했다”, “우리 공장 옆에 하는 데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금형 없이 이제 하니까 서로 그 같은 업종끼리 통해요. 멀리 있어도 이 사람이 서울에 있다가 대구 갈 수도 있고, 엔지니어가. 대구에 있다가 부산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이제. 그때 소문으로 전화로 알아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리고 창업한 지 10년 정도가 흐른 뒤, 주교동 공장 부지에 소방서가 생긴다고 해서 공장을 한 번 더 이전하게 된다. 이 이사를 계기로 산림동 시절이 시작되고, 이곳에서 199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20년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아들의 죽음과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

그는 1997년 여름 산림동으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이던 아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공장 이전을 돕는다. 시보리 공정은 시보리 선반과 각종 롤러들 그리고 원형절단기가 기본적인 기계 설비이고, 때에 따라서 프레스 기계와 다른 공구들을 함께 사용하는데 구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옮겨야 될 기계 설비들의 무게가 상당했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의 아들은 공장 이사를 도운 뒤 학교 애틀에 갔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깊은 슬픔에 빠져 공장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몇 년의 세월을 보낸다.

“엠티 갔다가 사고 당한거죠. 고안놈이 앞에 갔어야 했어. 아이고. 지금 살았으면 44살이네. 지금 애랑 두 살 아래니깐. 연년생이에요. 따지고 보면. 햇수로 따지니깐 두 살 아래지. 2학년 때. 연대 2학년 다니다가. 풍물 동아리. 데모 계속 나가면 죽는다고 내가 협박을 했는데, 결국. 안 나간다고 한 놈이 보니까 글썽 나중에 다 가고서. 계랑 한복 입고 데모하는 데 막 앞에서. 그 녀석이 살았으면 아마 뭐 학생운동권 했을 것 같아. 살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때도 그 대학 그, 대학연합 뭐예요, 무슨 연합에 그...”

“근데 그게 일에 대해 전혀 신경을 못, 안 썼으니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2년 동안 IMF 겪을 겨를이 없었어, 겨를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었죠, 처져 있었으니까. 나와도, 공장문을 열어놓고 나와 있어도 그냥.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있다 갈 때도 있고, 잠도 안 오고 그 이튿날 저녁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때 내가 상당히 팔팔했었고, 잔주름도, 눈가에 잔주름도 없고, 아주 그냥 젊은이 같았는데, 그때 한 2년 동안에 눈가에 주름도 생기고 서서히 지기 시작하더라고. 좌표를 잃어버린 배처럼 똑같지, 뭐. 어딜 가야 목적지도 나오고 그런 배처럼 모든 게 다 허무했다고 봐야지.”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서 등산과 불교에 심취하게 된다. 등산과 불교는 그가 지금도 매우 심취해 있는 취미활동이자 종교활동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예술가동 호회 활동도 시작하게 되고, 여러 활동들을 통해 만난 한 스님의 말씀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산과 불교 활동을 이어간다.

“엄청 힘들었죠. 그땐, 뭐 진짜. 어, 진짜 세상이 못살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니깐 한 2년 버티고 넘기고 나니깐, 살아지는 거죠. 내가 그땐 산을 미친 듯이 다녔어요. 산을. (중략)”

“전부터 불교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아이 잃고서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중략) ‘그래, 네가 조금 먼저 갔을 뿐이다’하는 그 뭔가를 수궁할 점이 나오니깐. 그래도 그 가슴을 쓸어내릴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 시절엔 참, 아이고 2년 동안 한잠도 못 잤어요. 내가. 그냥 뭐, 억울하고 분통터지고 막. 힘 빠지고 막 그러니깐. 그러다가 새벽에 한 아침 6시쯤 되면 한 5분, 10분 동안은 깜빡 졸아요. 그게 전부예요. 잠 자는 게. 나도 모르게 기절하고, 똑같은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이튿날 또 시작되는 거고.”

그래도 최소한으로 공장은 운영해야 되고, 남은 사람은 또 남은 사람의 생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거진금속에서 의뢰가 들어왔던 공업용 세탁기는 계속해서 생산을 한다. 그리고 2000년 초반까지 거진기업이 상당히 잘 나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정도까지 거진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일을 지속한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공업용 세탁기 외에도 환기구 제작, 닭 모이통 제작 등 시보리로 할 수 있는 여러 제품을 의뢰받아 공장을 운영한다.

“년 동안 놀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일을, 공장문을 못 닫은 거죠. 2년 동안 하지만 정신은, 그거 할 정신은 아니어도 그건 해줘야지.”

“많이 하는 날은 몇십 개도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여념은 개도 하고 계속 나도 하다 보니까 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되더라고, 후반기에는 (중략) 거진금속이 나갔다가 왔어요, 인도네시아에. 잘 될 때죠, 그때, 2000년 초반? 그 정도. 내가 축 쳐져 있다가도 그거는 내가 해줬으니까. 수입이 상당히 되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구술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보리 기술자로서 중년의 삶을 보내고 어느새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회고하면서 구술자 자신은 호기심 충족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였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더 하면서 기술장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전망을 밝히기도 했다.

“1순위가 내 삶에서 보면 호기심 충족, 만들고 하는 게 1순위였던 것 같아요, 항상. 가정은 두 번째. 그렇다고 소홀하지는 않고 가정에. 가정은 두 번째고, 세 번째라고 하면 거 이제 뭐 놀라가고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여가생활. 여가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종교라든가 그런 게 네 번째에 속하겠죠. 첫째가 아무튼 지금도 관성, 습관? 그거죠. 그게 있어가지고, 이 나이에든 자꾸 뭔가 하고 싶은 뭐, 생각나면 변화를 갖고 싶고.”

“앞으로 욕심이 있다면 조금 더 가고 싶은 거죠. 거 왜냐면 일만 있으면 지금도요, 지금 체력은 작년에 설악산을 젊은 사람은 그 저 오색의 그 약수터, 어디여 뭐 거기서 한계령에서 대청까지 올라가는 절반 올라가는 것도 지쳐서 퍼지는데 그 9km 완주하고 대청에서 대청을 찍고 희운각으로 내려와서 일고여덟 봉우리를 타고 넘어서 비선대까지 온다는 게 젊은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못 따라가요. 근데 그걸 한 달에 세 번을 갔다 왔다는 게 체력은 남아있다는 증거는 되잖아요.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는, 그런 건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일을 한다는 건 사람이 가장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나이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뭐 애들이나 봐주고, 정말 한마디로 노인 노릇하고 할 그런 건 질색이거든요, 솔직히. (웃음) 돈을 쥐가면서 해도 싫어요, 싫고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본보기로 일본에 어떤 103살 먹은 양반이 평생에 커피숍을 계속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커피맛을 내가면서, 그 사람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 장인이죠, 그것도 일종의. 그런 사람을 보면, 그래 저렇게 저게 인생이야 바로. 앞치마 두르고 저 나이에 얼마나 멋진가 하는 생각이죠. 어디 가서 애들이나 봐주고 맨날 놀면서 왔다 갔다 할 거야. 끔찍해, 끔찍해.”

그는 숙련된 기술자로서 호기심 충족을 위해 자신의 일과 삶을 지탱해왔다고 하지만,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가 계속해서 호기심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었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해왔다는 점이 역설적으로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그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금속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기술응용과 활용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했을 것이다.

05. 결론

1_기술인력으로서 소공인

소공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소공인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소공인의 정의와 교육훈련 방식의 변화를 추적하여 기술인력으로서 소공인의 사회적 존재방식을 살폈다.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특정 지역에 집적된 노동집약도가 높은 10인 미만의 제조업 공장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기술자이다.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제조산업은 식음료 제조부터 패션·가구·영상음향장비·인쇄출판 같은 문화상품 제조, 그리고 금속·목재·플라스틱·고무·화학물질을 가공하는 제조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생산활동을 위해서는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이 바로 소공인들이다.

그러나 소공인들은 고숙련의 기술인력에 해당하지만, 기술인력에 대한 공식적인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기술인력 분류체계는 이들을 과학기술인력과 산업기술인력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는 기술에 관한 학력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숙련 과정을 거친 소공인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정의는 아니다.

이러한 점은 숙련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업고등학교와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공을 양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원으로부터 이원화된 기술교육이 제도화된다. 하지만 이 경우도 기술인력이란 최소한의 제도적 교육훈련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에서도 소공인들의 역사는 배제되고 소외된다.

2_서울시의 공업억제정책과 주요 공업지역의 지속

서울시는 자체적인 공업정책이라고 할 만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공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통해 도시제조업을 어떻게 간주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식민지기와 한국전쟁 이후 서울의 공업은 용산·원효로, 영등포, 청계천에서 성장했다. 이 세 지역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공업을 입지시킨 지역이 아니라, 식민지기의 연장선에서 자유입지 형태로 성장한 공업지역이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자 정부는 서울에 과밀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 수원, 평택 등으로 공장을 분산시켰고, 계획입지 방식으로 구로와 영등포에 공업단지를 조성했다. 이때 각종 과밀억제정책으로 인해 입지 조건이 불리해지면서 서울의 공업이 영세화되기 시작했고, 이후 수도권 억제정책이나 탈공업화 흐름으로 인해 무등록 공장들이 많아지고 영세한 공장들은 생멸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부, 영등포, 구로, 성동 등의 공업지역은 공장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공업 특화지역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은 지난 10년간의 서울의 소공업 규모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자치구별 소공업의 비중을 보면 중구, 금천구, 성동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업종별로 보면 패션 관련 제조업과 종이 및 인쇄 제조업 그리고 기계금속제조업이 서울시 전체 제조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상공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소공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유지되었다는 점은 여전히 주요 공업지역과 그 업종들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오랜 공업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공업지역은 여전히 활발히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 관련 제조업과 종이 및 인쇄 제조업 그리고 기계금속제조업을 중심으로 중구, 금천구, 성동구, 종로구, 영등포구에서 생산활동이 벌어지고 있고, 이러한 생산활동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은 창신·송의·동대문, 청계천·을지로, 충무로, 성수동, 문래동 일대이다. 2015년 <소공인 지원법>이 만들어진 이후 서울시도 <도시형소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소공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앞서 2013년 도시재생법이 신설되고 이후 조례가 제정되면서 각종 소공업지역들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 지역산업이 처한 구조적 원인들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

이 새로운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앞서 언급한 공업억제정책 같은 오랫동안 구조화되어져 있던 도시제조업에 대한 정책적 관점을 전환하고,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 지원사업들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

3_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생애 전략

1) 비공식적 취업과 비제도적 기술 숙련

소공인들은 자신의 숙련기술을 통해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이다. 특히 금속가공기술자의 경우는 금속을 다른 무겁고 단단한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속가공기술자에게 기술 습득과 숙련을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구술자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직업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2년 시골 출신의 구술자는 1960년대 후반 서울로 상경해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해 자신의 기술직 이력을 쌓아간다. 바로 이 시기에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농업과 공업 모두에 중점을 두었지만, 공업과 같은 경우는 기계 설비의 마련과 기계를 다룰 줄 아는 기능공 양성에 힘을 썼다. 기능공 양성에 대한 양적 목표를 설정해놓고 공업고등학교와 기술사 자격 제도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했다. 공업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대규모 공장에 기능공으로 취직한다. 구술자 같은 시골 농촌 출신에 국민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상경한 경우에는 저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구술자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뒤 구직을 통해 취업한 사례가 아니라, 무일푼으로 서울에 상경한 뒤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취식을 겸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업장에 취직하여 ‘어깨너머’로 일을 배운 사례이다.

따라서 60~70년대에 위와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구술자와 같이 비공식적인 과정으로 취업한 뒤, ‘어깨너머’ 비제도적으로 기술을 배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구술자의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으로 이뤄진 취업과 기술 습득을 도시제조업 소공인 일반으로 확장시켜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50~60년대에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서울로 상경해 일을 배우기 시작한 노동자들에게는 해당된

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수공업 장인들 외에 근대적 공업기술자들이 없었던 국내 산업계의 상황을 감안해보면, 시보리라는 금속 가공 기술을 알려줄 선생이나 선배들은 거의 없거나 소수였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소공인의 기술 습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제식 교육하고도 차이가 있다. 도제식 교육은 기술장인이 제자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엄격한 위계와 규율이 있는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술자와 같이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작업장 내에서 선임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고 기억한 뒤 나중에 스스로 반복 학습하면서 기술을 체화하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림 5-1] 시보리 공정을 설명하는
소공인의 그림

이러한 방식의 기술 습득은 장단을 갖는다. 장점은 구술자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시보리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환경과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제도적 교육을 통해 얻는 기술 사용이 정해진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 여러 시도들을 했고 이러한 태도가 체화되어 기술 응용력의 토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식이 객관적으로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암묵지로 체화되어 있어, 주로 정확한 수치보다는 체화된 감각에 의존하여 작업을 한다.

이는 동시에 한계로 작동한다.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 이론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

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구술자는 시보리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수사법을 이미 익히고 있었다. 유년기 시절의 경험 덕분에 학습에 대한 욕구가 강했고, 합금강 주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금속재료학을 독학했다. 이미 금속을 만져보고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화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속도가 빨랐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 관계 속에서 방문객 응대와 인터뷰와 촬영 등 언론 노출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연습이 되어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과 예술가적 성향도 자신의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데에 일조했을 것이다.

2) 공업억제정책과 무등록 전략

서울의 도시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친 제도적 사건 중 하나는 1970년대 실행된 인구과밀방지정책이다. 이 정책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 인구가 서울로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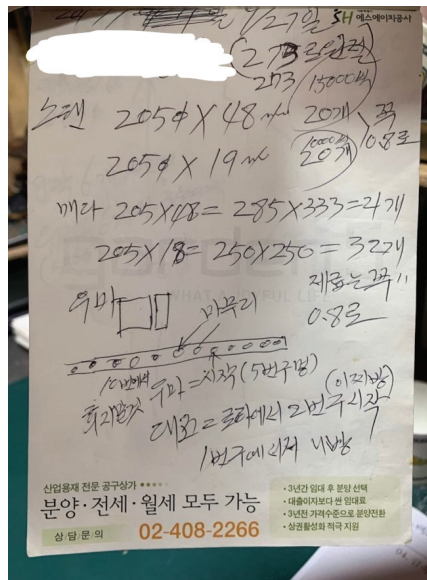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공장들이 도시 내 부적격 업종으로 판정받으면서 공장 문을 닫기도 했다. 그리고 수도권 바깥으로 이전한 경우는 인천, 부평, 부천, 시흥, 하남, 의정부 등으로 퍼져나갔다. 이전하지 않은 공장들의 경우는 대개 공해업종으로 지정되어 벌금을 내거나 많은 세금을 내면서 공장을 유지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무등록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만 임대한 다음 사업을 하는 것이다.

무등록 공장은 단적으로 봤을 때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울에서 공업을 몰아내고자 했던 도시정책의 측면을 고려하자면, 무등록 공장 운영은 도시제조업 소공인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소상공인 정책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참여할 수 없다. 나아가 회계와 행정이 전산화되면서, 거래업체들이 카드 사용 및 이체를 한다거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처리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수의 무등록 공장들이 공식적인 사업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시정부나 기초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국가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무등록 공장들이 이러한 국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에 비해 정책적 비중이 작아지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책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관련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¹¹⁾

따라서 도시제조업의 영세성은 단순히 최첨단 기계가 없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업을 서울시 외부로 몰아내고자 부당하게 여러 정책적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1970년대의 도시계획과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들 때문이기도 하다. 즉 서울시 고유의 공업정책 혹은 산업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을 배제했던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림 5-2] 주문을 받고 재료의 크기와
제조 방식을 기록한 종이

3) 산업적 요구에 대한 유연한 대응

소공인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이면서 숙련기술자이다. 자신의 기술력과 이를 기반으로 생산한 제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발명하기보다는 제한된 기술적 조건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생산방식의 기술적 문제만 고민하면 되는 기업연구소 엔지니어와 달리, 스스로 단가를

11) 특별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오랫동안 무등록 공장으로 유지되었던 곳을 양성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계산하고 이윤을 책정하기 때문에 단가에 맞춰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을 발명하려고 한다. 또한 소공인들은 자신의 노동시간이 곧 자신의 작업 시간과 판매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구술자는는 당대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업 공장에서 근무할 때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을 숙련해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공장 기술자로 일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이 요구될 때는 다량의 제품을 동시에 만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1990년대 이후에 창업가로서 B2B 시장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할 때는 주문자의 요청에 유연하고 저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형 제작 없이 할 수 있는 공간 시보리를 개발했다.

소공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일에 매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신의 기술과 사업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술생애사를 진행한 금속가공 기술자는 한때 자신의 기술력으로 여러 업체들의 제작 일을 맡아주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렸으나 점차 고정적인 거래업체가 줄어들면서 일감도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숙련기술과 그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하면서 소공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림 5-3] 소공인이 시보리 공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4_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

70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혁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형 제조업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그 행위자인 소공인의 일과 삶을 살펴보았다. 소공업과 소공인에 관련된 여러 층위들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의 차원에서, 이 연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제조업 지역인 청계천·을지로 일대에서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금속가공기술자의 생애사를 추적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자료들을 통해 소공인의 생애를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통해 소공인의 맥락을 드러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도시제조업의 영세성에만 주목한 결과 제조업 내에서 소공업의 역할과 그 의미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기록된 역사도 거의 없다.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인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종사하는 숙련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기술인력 분류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훈련에도 소공인 양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 둘째, 공업억제정책의 효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등록 공장들이 있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업의 규모가 실제에 비해 작게 산정되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비중 있는 정책대상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소공인의 일과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상황들에 대응해 비공식적인 취업과 비제도적인 기술교육훈련 그리고 잦은 이직과 생산품의 유연한 교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생애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즉, 소공인의 일에는 비공식적이고 비제도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산업 상황에 맞춰 자신의 생산방식을 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상정해온 ‘성실하고 근면한 노동자’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소공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근 ‘도시형소공인’을 법률적으로 정의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책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공인의 일과 삶을 지탱하는 조건들을 드러내기 위해 살펴본 도시제조업의 역사와 현재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취업하고 비제도적으로 기술을 습득하여 무등록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슬자의 생애와 간극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공업과 소공인에 관한 조사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도시제조업 현장의 경제적/문화적 활동을 기

록하고 그 역사를 추적해야 한다. 나아가 그동안 비교적 과소평가되었던 도시제조업의 가치와 의미를 재평가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도시제조업의 보존과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06. 정책 제언

1_생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도시제조업 계획 수립

기존의 도시제조업과 소공인 집적지에 대한 지원 정책은 주로 이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환경 및 생태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도시제조업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국제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제조업도 산업사회적 비전에서 벗어나 생태사회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제조업들이 공해 업종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팍시티나 리빙랩 프로젝트 같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식의 도시제조업의 모델을 만들어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보다 큰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_부처 간 합동 정책 설계 및 시행

도시제조업 지역들은 대부분 오래된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도시재생 구역으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산업생태계에 큰 변화를 주고, 동시에 가치사슬의 전후방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산업들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재개발은 도시형소공인에게 큰 위협이기도 하지만 도시형 소공업 자체가 산업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들에게도 큰 위협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형소공인에 정책은 산업정책만이 아니라 도시정책과도 연계되어야 하며,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의 영역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단일 부서의 정책이 아니라 부처 간 합동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3_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기록

도시제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장 기반의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도시제조업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지리학적 관점에서 산업입지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었거나, 정책적 관점에서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보니 도시제조업에 대한 기계적인 방식의 대안을 내놓게 되었다. 따라서 소공인 집적지별로 소공인들의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가치사슬 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 나아가 도시제조업 집적지의 도시조직, 그리고 각 공장의 산업문화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도시 내 생산활동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남겨 박물관에서 전시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_도시제조업 혁신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조성

도시제조업 혁신과 소공인 재생산을 위해 신규 세대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 본다. 대중들을 대상으로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들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실제 제조업 창업을 하려는 친구들에게는 소공인들의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기존의 소공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도시제조업에 대한 종합정보도 제공하고, 온라인 주문과 유통이 가능한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경, 2020, 「문래 금속가공 공장들의 문장 디자인」, 문학과지성사.
- 강우원, 1996, “서울 도심부 제조업의 입지특성 연구”, 「서울학연구」, 7, 191-224.
- 관계부처 합동, 2019,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산업통상자원부.
- 건국대학교·유스하이텍·섬유판선정책연구원, 2018,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서울시 도시제조업 지원 방안 연구」. 서울산업진흥원.
-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2020, 「입정의 기술, 정밀한 사람들」,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 공공네트워크, 2017, 「세운사람들」, 서울특별시.
- 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2018, 「2018 부리산업 백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부리산업진흥센터.
- 권오현·김민형, 2015, “건설 분야 장인의 숙련 형성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장인 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건설이슈포커스」, 1-38.
- 권미애·손민호, 2018, “숙달의 정체성으로서의 장인에 관한 연구: 송의동 목공장인의 작업장 들여다보기”, 「교육문화연구」, 24(66), 597-625.
- 김근배, 2005,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탄생」, 문학과지성사.
- 김덕호·문지영·박진희·송충기·이관수·이내주·이은경·이정희, 2013, 「근대 엔지니어의 탄생」, 에코리브르.
- 김덕호·문지영·박진희·송충기·이관수·이내주·이은경·이정희, 2014 「근대 엔지니어의 성장」, 에코리브르.
- 김덕호·문지영·박진희·송충기·이관수·이내주·이은경·이정희(역), 2017, 「현대 엔지니어와 산업자본주의」, 에코리브르(Meiksins, P. and Smith, C., 1996, Engineering Labour: Technical Workers in Comparative Perspective, Verso Books)
- 김두섭(역), 2013, 「질적연구방법론」, 나남(Mason, J. 200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 london Sage).
- 김목한, 2018, “서울시 산업정책과 공간경제”, 「서울의 공간경제학」, 나남출판.
- 김병욱·엄정윤·김승현, 2010, “청계천 공간의 변화와 시기별 미디어 담론 변화에 대한 일 사례 고찰:

- 조선일보의 1960년대, 1980년대, 2005년대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1, 26-46.
- 김아림(역), 2016, 『엔지니어들의 한국사』, 휴머니스트(Han, K.-H., and Downey, G. L., 2014, Engineers for Korea: Synthesis Lectures on Global Engineering, Morgan & Claypool Publishers)
- 김용창, 1997, 『서울시 토지이용에서 위치이용의 지역적 특성과 도심부 소규모사업장의 존재양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호, 2016, 「갈채와 망각, 그 뒤란의 '산업 전사'들 : '국제기능경기대회'와 1970~80년대의 기능인력」, 『역사문제연구』, 36, 103-148.
- 김홍식(역), 2010, 「장인: 현대문명이 잃어버린 생각하는 손」, 21세기북스(Sennet, R., 2009, The Craftsman, Yale University Press).
- 남기범, 2001, 「청계천로변 전문상가의 산업집적체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4(2), 79-96.
- 내용연구소, 2018, 『산림살림』,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 대한민국 정부, 2017, 『10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 메가리서치, 2015, 『을지로 특화업종 관련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중구청 시장경제과.
- 박경용, 2014, “대구 북성로 한 철공 기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색: 1937년생 K장인의 사례”,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2(2), 108-143.
- 박광덕(역), 1998, 『인간을 생각하는 엔지니어링』, 한울(Ferguson, E. S., 1992, Engineering and the Mind's Eye, MIT Press.).
- 서울역사편찬원, 2013, 『영등포 공장지대의 25시(서울역사구술자료집6)』, 서울특별시 역사찬원.
- 서울역사편찬원, 2016, 『미상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서울역사구술자료집7)』, 서울특별시 역사찬원.
- 서울역사박물관, 2010a, 『세운상가와 그 이웃들: 산업화의 기수에서 전자만물시장까지 1』,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b, 『도심 속 상공인 마을: 도심 상공인들의 생활문화 2』,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5, 『인현동: 세상을 찍어내는 인쇄골목』,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연구원, 2012 「서울시 우리 동네 특화업종 생태계 연구」,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4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밀집지역 현황과 전망」,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5 「서울시 주요 제조업의 공간특성별 공간분포」,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6 「제조업 다시보기」,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 2019,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 2014a,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산업 육성 발전 방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4b, 「경제비전 2030: 서울형 창조경제 모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a,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육성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7b, 「세운상가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심재정비1담당관, 2009,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그 과정의 기록」, 서울특별시.

송도영, 2001, 「청계천 공구상가의 형성과 일상적 관계망」, 「청계천: 시간, 장소, 사람 - 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1」, 서울학연구소.

시간과공간연구소, 2016, 「북성로 MEISTER: 10인의 기술장인」, 대구 중구청.

심한별, 2013, 「서울 도심부 도시형태 및 생산활동의 변화에 대한 제도주의적 해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안근철, 2019, 「OO금속 공장 도면」, 미발표 자료.

윤재석, 2014,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 기파랑.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이용숙·이수정·정진웅·한경구·황익주, 2013,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이재실, 2011, 「일터경험학습을 통한 명장의 성장과정 연구」, 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장미현, 2016, 「박정희 정부 시기 기술인력정책의 전개와 숙련노동자의 대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원섭, 2015, 「장인의 탄생」, 학지사.

저스트프로젝트, 2018, 「청년 생산활동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현장연구: 을지로 지역의 2차 및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청년허브.

전미영, 2020, 「산업화 '너머'의 작업장: 예지동 시계골목의 기술과 문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순옥·권은정, 2015, 「소공인: 전순옥이 만난 우리 시대의 장인들」, 뿌리와이파리.

조동원, 2017, 「청계천 전자상가, 복제의 기술문화, 디지털문화의 형성」, 「IDI 도시연구」, 11, 37-78.

조성재·박준식·전명숙·전인·김기웅, 2013, 「한국의 산업발전과 숙련노동: 명장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성재·장영석·오학수·정준호·황선웅·김기민, 2016,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와 동아시아의 일자리 변동」, 한국노동연구원.

- 조항희·이은경·이춘근·김선우, 2002,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정책」,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 2013, 「도시형소공인 지원활성화 방안」, 소상공인진흥원.
- 중소기업연구원, 201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방안 연구」, 소상공인진흥원.
- 청계천박물관, 2018, 「메이드 인 청계천: 대중문화, '뽕판'의 시대」, 서울역사박물관.
- 최인기, 2018, 「청계천 사람들, 삶과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청계천」, 리스너투데이.
- 최혁규, 2017, “메이커 문화를 둘러싼 담론적 지형: 메이커 운동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82, 73-103.
- 최혁규, 2018, 「메이커 문화의 사회적 구성: 국내 메이커 주체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혁규, 2019, “청계천·을지로 일대 생산네트워크의 기술적 조건에 대한 어떤 질문”, 「과학뒤켂」 7호.
- 한경희, 2018, “한국 엔지니어 연구방법론의 고찰”, 「과학기술학연구」, 18(2), 181-232.
-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4, 「한국인의 장인의식: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들을 통해 본 장인의식의 현주소」,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8, 「도시제조업진흥재단(가칭)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 서울산업진흥원.
- 형기주, 2003, “서울공업의 변천”, 「서울 상공업사」, 서울특별시.
- 홍석일·지민웅·신종원·한창용, 2016, 「소상공인정책의 현 위상과 향후 과제」, 산업연구원.
- 홍성주, 2010,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성욱, 2005, “과학과 도제 사이에서: 19세기 영국의 공학교육 - 전기공학에서의 실험실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7(1), 1-31.
- HRST 공동연구센터, 2007,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Multiplicities, 2018, 「Global Review Report: Urban Manufacturing」. Multiplicities.

기계공학용어사전 ‘스피닝’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0325&docId=1613441&categoryId=50325>

도해 기계용어사전 ‘스피닝 가공’

<https://m.terms.naver.com/entry.nhn?cid=42327&docId=412397&categoryId=42327>

4차산업혁명 지식서비스 ‘기술창업지식: 헤라 시보리 가공’

<https://4ir.kisti.re.kr/ick/cmmn/viewPost/20180228000050>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통계분류포털)

<http://www.gabsun.com> (사이버기술교실 홈페이지)

<http://www.motie.go.kr/www/main.do>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https://data.seoul.go.kr> (서울열린데이터광장)

<http://www.junggu.seoul.kr/content.do?cmsid=12410>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웹페이지)

<https://www.mss.go.kr/site/smba/mss/main.do> (중소기업벤처부 홈페이지)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9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일과 삶
: 금속가공기술자의 구술생애사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